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경남지역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경남경제리뷰」)

- ◆ 8월 20일(월) 한국은행 경남본부(본부장 서영만)는 경남발전연구원 사회가족연구실 김태영 실장, 한국은행 한대성 과장이 공동 작성한 「경남지역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를 발표

- 조선업·제조업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성장률 정체 및 고용 악화가 계속되는 **경남지역**은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9.9)**의 약 **2배(20.9)**에 달하는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할 필요
- 이에 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부문별 관광산업 활성화**, **테마별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정책 지원 강화** 등 총 3개 분야 11개 과제를 시급성에 따라 단·중기로 구분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 업종 부문별 활성화 정책으로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사업체 지원 확충**, **숙박시설 인증·관리** 및 **다양화**, **우수 음식점 선발**, **정보 제공 확대** 등 **환대서비스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
 - 테마별 관광산업 부문에서는 의약엑스포,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등 기존 **메가이벤트**의 **콘텐츠 업그레이드** 및 **지속 개최**를 우선 추진
 - 관광정책 지원 강화에 있어서는 개별여행객 증가 트렌드를 반영한 **개별여행객 지원정책**, **경상·전라권과의 연계** 및 **마케팅 강화**, **주요 관광시설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우선 지원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한국은행 경남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한대성

Tel : (055) 260-5083 E-mail : gyeongnam@bok.or.kr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http://www.bok.or.kr> ⇒ 우측상단 지역본부 ⇒ 경남본부)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지역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과제

김태영¹⁾, 한대성²⁾

1)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 한국은행 경남본부

〈요약〉

I. 서론

II. 관광시장 분석

1. 관광트렌드 분석
2. 관광수요 분석

III. 관광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1. 관광산업의 분류 및 현황
2. 관광산업 정책동향

IV. 경남 관광산업 경쟁력 분석

1. 관광경쟁력의 개요 및 평가 항목
2. 경남 관광경쟁력 분석

V. 종합분석

VI. 발전과제

1. 주요 표적시장 선정 및 우선순위 도출
2. 부문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3. 테마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4. 관광정책 지원 강화 방안

참고문헌

< 요약 >

관광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GDP 비중의 5.1%,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9.9)의 약 2배인 20.9로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경제성장의 동력, 지역발전 전략 등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에 따라 앞으로 관광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2016)에서 관광객 유치 확대에 따른 관광지출 증가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국내관광 지출액 5% 증가 시, 1조 2,000억원, 10% 증가 시 2조 5,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축제, 메가 이벤트 등의 개최여부는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대장경제세계문화축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2016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등 메가 이벤트를 개최한 연도에는 도내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2013년 대장경제세계문화축전은 4,087억원, 산청전통의약엑스포는 2,98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은 MICE산업, 식음료업, 운수산업,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등 광범위한 산업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성장은 타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 이처럼 관광산업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입증되고, 관광산업 육성·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앞으로도 세계 관광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관광산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지방의 영세한 사업체들의 경우 수도권의 대형 사업체들과 경쟁 자체가 어려운 현실 등의 구조적 한계들이 지방 관광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역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2018년 7월 개최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국제적 지역관광 거점을 통한 관광 목적지 다양화,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통한 지역관광 매력도 상승 등 4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남의 관광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 지역내 총생산(GRDP) 103조 9,954억원 중 연관산업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총생산은 5조 8,589억원으로 전체 GRDP 중 5.6%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상의 관광사업체 수²⁾는 85,695개, 관광종사자는 227,532명으로 경남 쏠 산업 대비 각각 31.9%, 1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문화체육관광부(2008), 관광진흥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 2) 운송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포함

경남의 관광산업 경쟁력 분석결과, 관광진흥법상 경남의 관광사업체는 전국에서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남의 관광사업체 규모는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이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관광사업체의 45%가 집중되어 있어 전국 평균 2007.4개 대비 경남은 1,853개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광객이용시설업 265개(6.8%), 유원시설업 209개(9.6%), 관광편의시설업 260개(6.4%)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여행업 996개(4.7%), 관광숙박업 107개(5.4%), 회의업 16개(1.8%)로 전국 대비 규모가 영세하고,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문화관광축제 81개 중 경남은 6개가 지정, 평균 4.8개보다 높았고, 생태·녹색관광자원은 자연공원 16개(20.5%), 관광농원 111개(17.4%), 농촌체험휴양마을 105개(11.0%), 어촌체험마을 22개(20.8%), 삼림욕장 20개(10.3%) 등으로 전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정문화재 또한 1,216개로 전국에서 11.4%의 비중을 차지, 평균 626.7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섬 3,677개 중 794개소를 보유, 평균 216.2개 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즉, 관광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경남 전 산업에서 관광산업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국 대비 관광사업체 규모가 다소 작은 편이지만, 생태·녹색, 역사문화, 해양 등 분야별 전국 대비 월등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남의 관광산업 현황 및 정책 분석, 관광 수요 분석, 관광경쟁력 분석 등 체계적 과정을 토대로 경남 관광산업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한 결과, 항노화·웰니스 등 지역 특화 관광산업과 풍부한 관광자원 및 산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핵심 관광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 지역 대비 관광산업 규모가 작은 편이며, 정부 관광정책 및 트렌드 반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사업체 및 인력의 수도권 집중, 관광산업 육성 경쟁 가속화 등은 경남 관광산업의 발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앞으로 경남 관광산업 발전에 기회요소들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최근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남의 관광수요 회복과 관광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남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경남 관광산업의 주요 표적시장을 거주지역별, 시기·활동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경남 관광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부문별 관광산업 활성화, 테마별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정책 지원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사업 추진의 시급성에 따라 과제를 단기·중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야별 과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먼저 부문별 관광산업 활성화에서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사업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지원, 중저가 숙박시설 확대 및 숙박시설 수용태세 개선, 식음시설 정보 제공 확대와 환대서비스 개선 등 분야별 관광사업체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단기 과제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남 특화 MICE 육성 및 지역 대표시설 유니크베뉴화와 서부경남권 거점 쇼핑시설 육성, 사후면세점 지정 확대를 통한 도내 쇼핑인프라 확충도 검토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테마별 관광산업 활성화 부문에서는 경남의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해 전통 의약엑스포,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등 기존 개최된 메가이벤트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한 연도별 메가이벤트 개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6차 산업화도 단기과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지훈련 지원센터 구축, 경남형 전지훈련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도내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도 중기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 지원 강화 방안으로 개별여행객 증가 트렌드를 반영한 개별여행객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개별여행객 지원정책, 경남 마케팅 강화 및 주요 관광시설 연계시스템 구축은 정채된 경남관광 수요 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노후화된 도내 문화관광시설에 증강현실(AR) 등 ICT 도입을 통한 관광지 재생을 통한 수요 회복 및 신규 수요 창출 또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하동원, 2017), 국내외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 전략으로 관광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전북발전연구원, 2014).

국내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관광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지역 제조업 등 성장률 정체 및 고용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정부에서도 2008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3년 관광산업 육성 대책 발표, 2018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산업육성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관광산업은 타산업과 비교할 때 부가가치 창출 효과 및 외화가득률이 높은 산업으로 고용창출 및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인적·문화교류를 통한 세계화 및 지방화 촉진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오경숙, 2012)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한국 GDP 비중의 5.1%, 고용기여도는 5.8%로 나타났으며, 관광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20.8846) 제조업(9.8745)대비 약 2배, 전 산업(15.1576) 대비 약 1.4배(문화체육관광부, 2016)에 달해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관광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제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전북발전연구원, 2014).

관광산업은 관광의 주체와 객체 사이에 존재하는 사업경영적 인간 활동의 총체로 관광주체의 관광행위 발생을 유발하여 각종 요소의 적절한 조화 및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의 이용증대를 통하여 관광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들의 다양한 관광행동이 활동을 통하여 관광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효과를(채서묵, 1990) 촉진시켜주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직접, 간접, 유발효과로 구분되는데, 직접효과는 숙박업자, 기념품 판매자, 음식점업 등과 같은 관광객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관광업자들에게 발생하는 효과로 1차 효과라고도 한다. 간접효과는 1차 효과 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관광관련 서비스업의 소득과 이에 발생하는 고용창출효과까지 통칭한다(김사현, 1999),

관광진흥법상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의 관광 사업체수(2018년 기준)는 34,126개로 이 중 48.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남은 1,853(전국 평균 2,007개소)개로 전국대비 5.4%(5번째), 관광 종사자(2016년 기준)는 9,078명(전국 평균 15,140명)으로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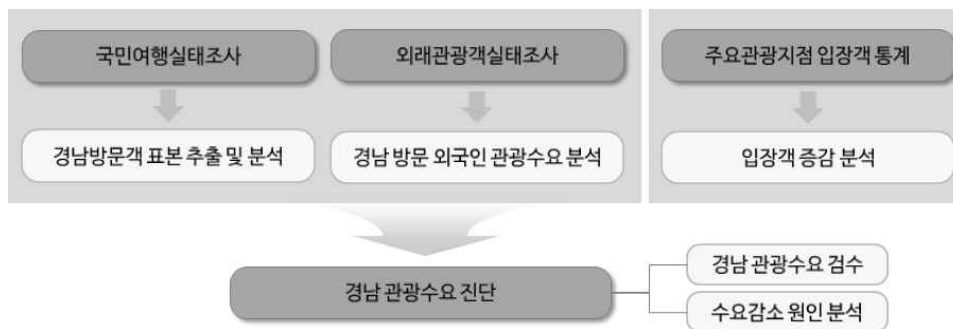
대비 3.5%(8번째), 관광사업체 매출액(2016년 기준)은 487,895백만원, 전국대비 1.9%(8번째)로 경남의 관광산업은 전국대비 사업체 규모가 다소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관광수요는 관광산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국민 국내 관광수요는 지속적 증가세이나 경남 관광수요는 최근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남 관광수요 회복 및 신규 창출을 통해 경남 관광산업 질적 성장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경남의 관광경쟁력 확보를 통해 관광산업이 성장과 고용 창출을 견인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제 기능을 수행 및 육성하기 위해 경남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경남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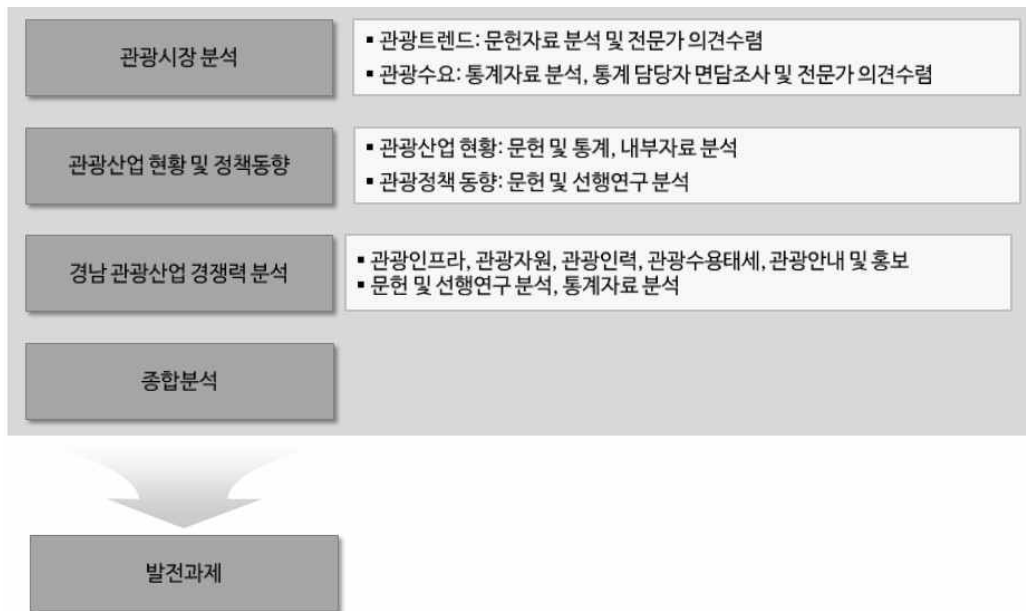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5년 이내 자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현황 및 기초자료는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관광트렌드 및 관광수급 분석, 관광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종합분석, 발전과제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UNWTO, 국내외 관광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 등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광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국민여행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및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검토·분석,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분석 등을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관광산업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경남도 내부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정책동향은 정부와 경남도, 타 지자체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문헌 및 내부 자료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관광트렌드, 관광산업 여건, 관광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SWOT분석 및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다.



II. 관광시장 분석

1. 관광트렌드 분석

국내외적으로 경제·환경·기술·사회 등 분야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다양한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의 등장에 따라 관광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16).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인생은 오직 한번뿐이기 때문에 현재를 충분히 즐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옴로(YOLO)³⁾, 개인별 가치에 따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포미(FOR ME)⁴⁾ 등 새로운 개념의 가치관 확산과 대체 휴일제 도입, 기업 차원에서의 연차사용 촉진제 시행 등 개인의 삶과 여가 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관광시장 규모 및 수요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관광 트렌드를 분석·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관광공사(2018)는 소셜빅데이터 분석과 관광전문가 의견 종합을 통해 국내 주요 관광트렌드 키워드로 스테이케이션(Stacycation)⁵⁾, 트래블그램(Travelgram), 도시재생(Regeneration) 등을 제시하였다. 과거 여행이 휴가, 공휴일 등 특별한 날에 떠나는 개념이었다면, KTX, SRT 등 고속철도, 저비용 항공 시장 확대 등 교통인프라 발달에 힘입어 현대의 여행은 당일여행, 1박 2일 여행 등 일상 중 틈틈이 짧은 시간으로도 즐길 수 있는 일상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Instagram)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기록·인증하는 행태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생샷(인생에서 가장 잘나온 사진)을 찍기 위한 장소들이 밀집한 서울, 부산, 제주 등이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생샷을 찍기 위한 장소 중 하나로 익히 알려진 유명 관광지보다는 골목, 시장 등의 구도심에 문화·예술·역사적 요소가 융합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 모델인 부산 감천문화마을, 통영 동피랑 마을, 경주 황리단길 등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도시재생(Regeneration)이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13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현 정부에서도 지역 주도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경남발전연구원, 2018).

3) You Only Live Once의 약자

4) 건강(For health), 싱글족(One), 여가(Recreation), 편의(More convenient), 고가(Expensive)의 합성어

5) ‘머물다’라는 의미의 스테이(Stay)와 ‘휴가’를 의미하는 베케이션(Vacation)의 합성어로 먼 곳으로 떠나기보다 가까운 곳으로 떠나는 새로운 여행트렌드

한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관광 트렌드로 혼행족, DIY⁶⁾ 여행 등을 꼽았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으로 1~2인 가구는 전체의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 평균 가구원수는 2.1명, 1~2인 가구는 7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소규모 가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관광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혼자 여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혼행족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는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국내 여행사인 하나투어에서 패키지 상품 예약수요를 분석한 결과, 혼자 예약하는 수요는 2012년 6만 2천여명에서 2016년 25만 9천여명으로 5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항공, 호텔, 일정, 가이드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상품의 선호도가 높았던 반면, 항공권, 호텔, 렌터카 등 단일 상품을 각각 따로 구입하여 여행상품을 직접 구성하는 DIY여행이 확산되면서 최근 여행행태는 단체여행 중심에서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17).

경남발전연구원(2017)은 먹방 여행, 히든쥬얼(Hidden jewels) 여행 등을 관광트렌드로 제시하였다. 최근 먹는 방송을 의미하는 ‘먹방’이 방송의 한 트렌드가 되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먹는 것을 목적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얻는 먹방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16년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여행지 주요활동 조사결과에 의하면, 음식관광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관광의 비중은 2010년 10.9% 대비 2016년 19.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명 관광지를 선호했던 과거와 달리 현지인들 사이에서 문화와 풍습, 인문 등을 자유롭게 체험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추세가 증가하여 골목길 투어, 길거리 시장 등 숨겨진 관광지를 찾는 히든쥬얼(Hidden jewels) 여행이 확산됨에 따라 부산 원도심 골목투어, 대구 근대골목투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은 BLeisure, 온라인과 모바일, 공유경제(Sharing economies) 등을 관광 트렌드로 제시하였으며, 주목해야 할 관광 소비시장으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와 베이비 붐 세대를 꼽았다. 베이비 붐 세대는 전쟁 후 태어난 사람들로 국가에 따라 연령대가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60세 전후의 세대로 뉴시니어 계층, 꽃중년 등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은퇴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시장의 주요 소비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세대로 워라벨, 경험 등을 중요시 하는 가치관을 보유, 여행을 인생의 주요 영역으로 여긴다는 특징이 있으며, 실제로 현재 국제 여행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OECD, 2018). 이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관광시장의 주요 소비층이 되면서 비즈니스(Business)와 레저(Leisure)의 합성인 BLeisure⁷⁾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온라인, 소셜미디어 리뷰 등을 통해 관광정보를 획득하고, 예약함으로써 에어비앤비, 우버 등 공유경제의 개념을 도입한 관광기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6) Do It Yourself의 약자

7) 업무로 타국 혹은 타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개인시간을 이용하여 관광까지 즐기는 현상을 의미

OECD(2018)는 중산층의 확대, 양성 평등 강화, 인구 고령화, 기술과 인터넷에 익숙한 새로운 소비 그룹의 출현 등에 따라 관광시장의 인구학적 구성과 기호가 변화하면서 관광객의 여행 패턴과 요구가 현재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연간 3%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령인구 대상의 의료관광 등의 수익률과 성장기회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인 Z세대, 밀레니얼 세대는 주목해야 할 관광시장이며,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밀레니얼 세대는 여행 등의 경험을 중시하고, Z세대는 소셜 미디어와 또래 세대의 추천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보유했으며, 여행과 관련된 결정에 있어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의 주요한 환경 변화 및 트렌드 중 하나로 관광산업과 4차 산업 간의 융·복합 현상을 들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은 플랫폼 경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기술적 요소가 관광 콘텐츠의 생산, 소비행위, 유통구조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관광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화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광산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4차 산업 기술로 온라인, 모바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관광산업과 결합하여 공유기반 온라인 숙박서비스업, VR 가상투어 서비스, 카지노의 로봇 딜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표 1> 4차 산업혁명과 관광산업의 변화

구분	개념	관광산업의 변화
초연결	사람, 사물 등 객체간의 유기적 연계	- 관광산업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 경제의 부상 - OTA(온라인 여행사)의 시장규모 확대 및 성장
초지능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결정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객 행태 변화 진단 - 플랫폼 연계로 수요자 맞춤형 여행 서비스 제공
초융합화	이종 기술 및 산업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 산업의 출현	-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교통, 숙박 등 개별 서비스 간의 연계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장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4차 산업혁명과 문화·관광 산업 정책방향

정부에서도 4차 산업과 관련하여 문화관광 부문의 국정과제로 융복합콘텐츠 육성·지원(4차 산업에 기반한 융합 플랫폼 구축 및 뉴콘텐츠 육성·확대), 관광산업 육성(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운영, '22년까지 800개 관광 벤처기업 발굴·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을 선정하였고, 향후 관광산업에서 4차 산업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경남발전연구원, 2018).

선행연구에 의한 관광 트렌드를 종합하여 보면, 여행의 일상화,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소셜미디어의 중요성 증대,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의 행태 변화, 4차 산업 융·복합 등으로 축약할 수 있으며, 관광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소비층은 Z세대,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 뉴시니어 세대를 들 수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관광산업 환경과 관광트렌드에 따라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미래 트렌드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과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심원섭, 2010).

2. 관광수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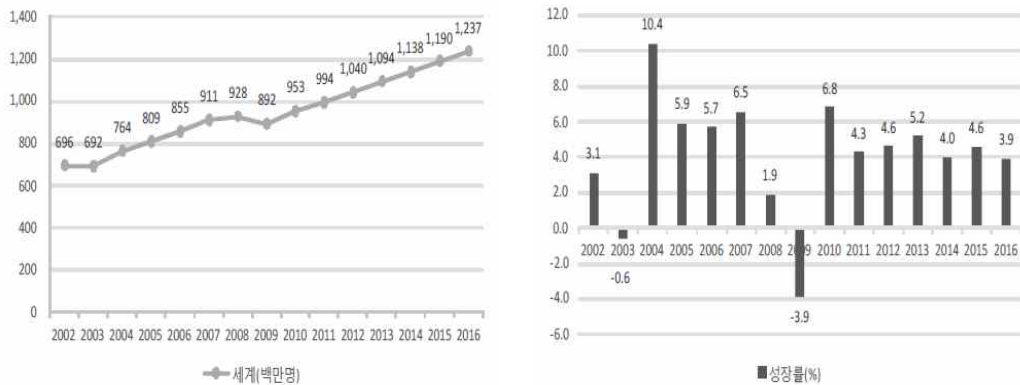
가. 세계 관광시장

2016년 국제관광객 입국자수는 전년대비 3.9% 증가한 12억 3,700만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7년 연속 성장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이런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그림 1> 세계 인바운드 규모(2002~2016)

(단위 : 백만명)

(단위 : %)



자료 :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October,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6 방한관광시장의 모든 것

2016년 전 세계 인바운드 TOP 5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프랑스, 미국, 스페인, 중국, 이탈리아 순으로 잠정 집계 되었으며, 1~5위 상위권 국가들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한국은 세계 인바운드 순위에서 2014년 20위, 2015년 25위, 2016년 20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세계 인바운드 순위(2014~2016)

(단위 : 백만명)

순위	2016년		2015년		2014년	
	국가	인원	국가	인원	국가	인원
1	프랑스	82.6	프랑스	84.5	프랑스	83.7
2	미국	75.6	미국	77.5	미국	75.0
3	스페인	75.3	스페인	68.5	스페인	64.9
4	중국	59.3	중국	56.9	중국	55.6
5	이탈리아	52.4	이탈리아	50.7	이탈리아	48.6
6	영국	35.8	터키	39.5	터키	39.8
7	독일	35.6	독일	35.0	독일	33.0
8	멕시코	35.1	영국	34.4	영국	32.6
9	태국	32.6	멕시코	32.1	멕시코	29.3
10	터키	30.3	태국	29.9	홍콩	27.8
20	한국	17.2	네덜란드	15.0	한국	14.2
25	인도	14.6	한국	13.2	우크라이나	12.7

자료 :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October,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6 방한관광시장의 모든 것

세계관광기구(UNWTO)는 2010년에서 2030년까지 국제관광객은 연평균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국제관광객 규모는 13.6억명, 2030년에는 18.1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30년 전 세계 인바운드 관광객 점유율이 2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3> 2020년 · 2030년 인바운드 관광객 전망

(단위 : 백만명 · %)

구분		관광객수		성장률	
		2020년	2030년	2020년	2030년
전세계		1,360	1,809	3.8	2.9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31	46	5.2	4.0
	서/중앙아프리카	13	22	6.5	5.4
	동아프리카	22	37	6.2	5.4
	남아프리카	20	29	4.5	4.1
	소계	85	134	5.4	4.6
미주	북미	120	138	2.0	1.4
	카리브해	25	30	2.4	1.7
	중미	14	22	6.0	4.5
	남미	40	58	5.3	3.9
	소계	199	248	2.9	2.2

자료 : UNWTO, 「Tourism Highlights」,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6 방한관광시장의 모든 것

<표 3> 2020년 · 2030년 인바운드 관광객 전망(표계속)

(단위 : 백만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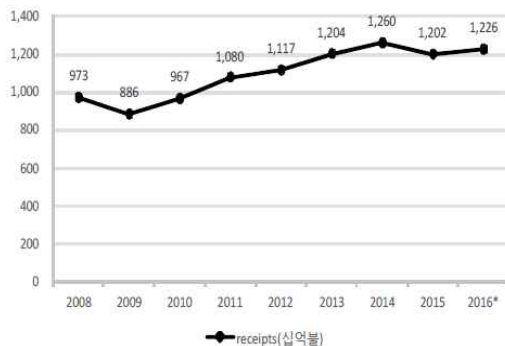
구분		관광객수		성장률	
		2020년	2030년	2020년	2030년
아시아/태평양	동북아시아	195	293	5.7	4.2
	동남아시아	123	187	5.8	4.3
	오세아니아	15	19	2.9	2.0
	남아시아	21	36	6.8	5.3
	소계	355	535	5.7	4.2
유럽	북유럽	72	82	2.2	1.4
	서유럽	192	222	2.3	1.4
	동/중부유럽	137	176	3.7	2.5
	남유럽	219	264	2.6	1.9
	소계	620	744	2.7	1.8
중동		101	149	5.2	4.0

자료 : UNWTO, 「Tourism Highlights」,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6 방한관광시장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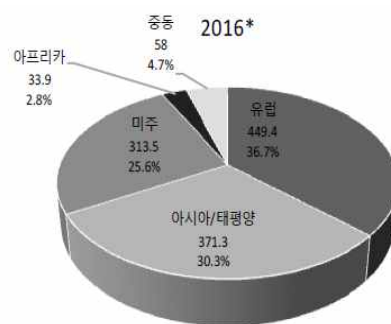
2016년 전 세계 인바운드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US\$ 1조 2,260억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2010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면서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5년은 전년대비 4.6% 감소, 2016년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2> 세계 관광수입 규모

(단위 : US \$10억)



(단위 : US \$10억)



자료 :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October,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6 방한관광시장의 모든 것

2016년 세계 관광수입 상위 5개국인 미국, 스페인, 태국, 중국, 프랑스가 전 세계 관광수입의 33%를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한국은 2014년 18위, 2015년 23위, 2016년 21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표 4> 세계 관광수입 규모(2014~2016)

(단위 : US \$10억)

순위	2016년		2015년		2014년	
	국가	수입	국가	수입	국가	수입
1	미국	205.9	미국	205.4	미국	191.9
2	스페인	60.3	스페인	56.5	스페인	65.1
3	태국	49.9	영국	45.5	프랑스	58.1
4	중국	44.4	중국	45.0	영국	46.5
5	프랑스	42.5	태국	44.9	이탈리아	45.5
6	이탈리아	40.2	프랑스	44.9	중국	44.0
7	영국	39.6	이탈리아	39.4	독일	43.3
8	독일	37.4	독일	36.9	멕시코	42.7
9	홍콩	32.9	홍콩	36.2	태국	38.4
10	호주	32.4	마카오	31.0	홍콩	38.4
18	싱가포르	18.4	아랍에미리트	17.5	한국	17.8
21	한국	17.2	스위스	16.4	캐나다	17.7
23	그리스	14.6	한국	15.2	아랍에미리트	15.2

자료 :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October,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6 방한관광시장의 모든 것

2016년 세계 관광수출 상위 5개국인 중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관광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한국은 2014년 14위, 2015년 9위, 2016년 8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세계 주요국 관광지출 현황(2014~2016)

(단위 : US \$10억)

순위	2016년		2015년		2014년	
	국가	수입	국가	수입	국가	수입
1	중국	261.1	중국	249.8	중국	227.3
2	미국	123.6	미국	114.7	미국	105.7
3	독일	79.8	독일	77.5	독일	93.3
4	영국	64.8	영국	66.6	영국	62.6
5	프랑스	40.5	프랑스	39.3	러시아	50.4
6	캐나다	30.8	러시아	34.9	프랑스	48.8
7	호주	29.1	캐나다	30.1	캐나다	34.4
8	한국	26.6	호주	29.2	이탈리아	28.8
9	이탈리아	25.0	한국	25.3	호주	26.9
10	홍콩	24.2	이탈리아	24.4	브라질	25.6
14	스페인	19.3	벨기에	18.9	한국	23.2

자료 : 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October,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6 방한관광시장의 모든 것

나. 국민 국내 관광수요

관광주간 지정, 대체 휴일제 도입 등으로 국내 관광여행 참가자수는 지속적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29백만명에서 2016년 32백만명으로 연평균 3.6% 증가하였다. 하지만 경남 방문객은 2013년 8백만명을 돌파한 이후 다소 정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국내 3~4위권 방문목적지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표 6> 연도별 · 시도별 관광여행 참가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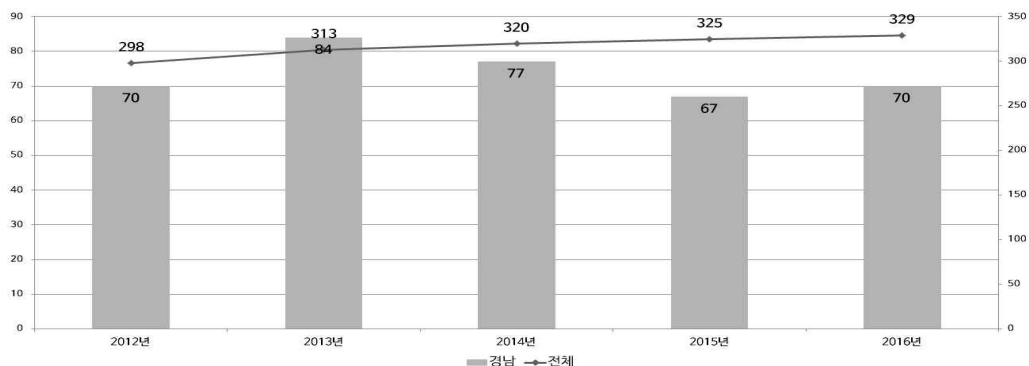
(단위 : 명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율
전 체	29,896,150	31,364,363	32,004,613	32,586,226	32,948,059	3.6
서 울	2,973,396	3,109,372	4,212,334	4,213,935	4,832,245	8.8
부 산	3,847,767	4,582,134	4,062,408	4,454,373	4,615,946	△0.5
대 구	830,680	1,057,197	673,289	1,017,607	817,176	△3.8
인 천	2,017,837	1,783,413	2,677,174	2,724,931	3,374,684	△0.8
광 주	517,464	481,454	478,069	543,577	507,207	△6.6
대 전	993,914	988,330	1,082,048	907,895	1,273,250	4.4
울 산	1,065,720	1,262,131	979,482	993,855	1,344,928	3.9
세 종	-	-	284,473	154,036	303,983	10.8
경 기	7,317,907	8,304,088	9,235,220	9,534,210	10,627,918	△17.7
강 원	8,719,404	9,410,390	10,932,997	10,238,780	10,243,406	3.6
충 북	3,109,850	3,784,153	3,314,777	3,302,935	3,409,539	10.3
충 남	5,394,437	6,204,026	6,561,589	6,962,258	7,118,389	△3.7
전 북	4,301,209	5,017,864	5,604,794	4,738,127	5,548,560	5.3
전 남	7,813,396	6,548,822	5,763,785	6,283,763	6,963,171	3.8
경 북	6,625,738	7,925,918	6,676,868	6,119,228	5,898,474	6.6
경 남	7,005,817	8,489,623	7,700,348	6,721,514	7,087,543	1.6
제 주	3,732,246	3,720,081	3,432,667	4,383,500	4,484,115	2.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국민여행실태조사

<그림 3> 연도별 관광여행 참가자수

(단위 : 십만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민 국내 관광총량 역시 지속적 증가추세로 2012년 365백만일에서 2016년 412백만일로 연평균 3.0% 증가하였다. 경남 관광총량은 2013년 38백만일에서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4년 대비 약 92%를 회복한 수준이다.

<표 7> 연도별 · 시도별 관광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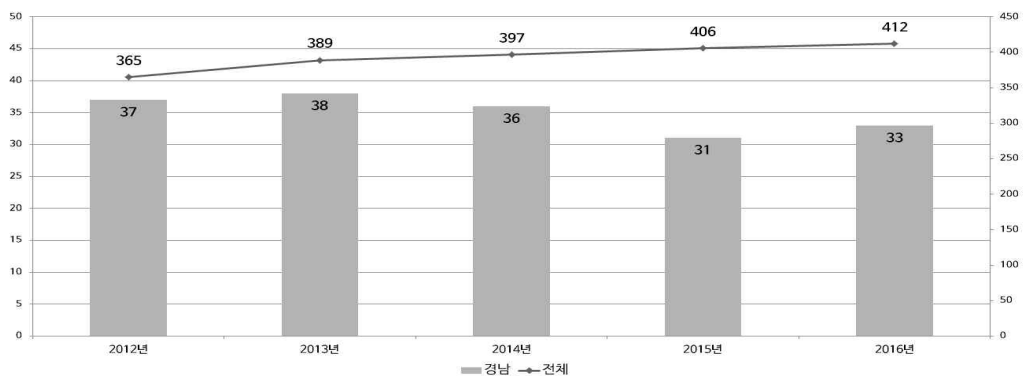
(단위 : 일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율
전 체	365,282,249	389,220,312	397,846,767	406,818,700	412,378,155	3.0
서 울	32,329,736	35,730,154	39,742,292	41,724,988	38,011,190	3.6
부 산	25,293,603	22,440,421	18,669,777	20,195,742	20,973,531	△5.4
대 구	11,617,924	9,484,679	8,964,326	8,946,439	8,680,977	△7.9
인 천	8,940,661	8,855,262	10,319,816	11,000,289	13,249,169	9.1
광 주	6,335,858	6,361,789	8,242,825	8,673,414	6,297,894	△2.4
대 전	8,520,287	8,380,628	9,726,163	9,302,799	10,273,338	4.3
울 산	4,263,812	4,891,602	3,820,055	4,347,919	5,232,719	3.5
세 종	-	-	841,236	777,931	1,683,045	22.8
경 기	44,463,290	48,871,340	53,736,968	67,125,374	69,748,143	10.4
강 원	33,807,519	38,132,630	45,534,155	39,062,703	38,423,522	2.3
충 북	15,682,230	18,389,344	16,624,986	16,809,139	19,862,859	5.1
충 남	30,116,059	36,599,139	38,919,242	42,209,048	38,016,952	5.1
전 북	23,113,276	24,758,092	28,812,482	24,386,550	27,833,074	3.7
전 남	33,533,552	32,870,487	28,954,261	30,112,791	33,212,399	△0.6
경 북	34,470,428	39,060,565	35,178,203	31,338,654	29,075,433	△4.8
경 남	37,634,944	38,463,294	36,093,642	31,702,671	33,322,078	△3.4
제 주	15,159,071	15,930,884	13,666,338	19,102,249	18,481,832	3.3

주 : 관광총량은 국내 숙박 및 당일여행 일수의 총합계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국민여행실태조사

<그림 4> 연도별 관광총량

(단위 : 백만일)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국민여행실태조사

경남 관광수요 정체는 메가 이벤트 개최 수 감소, 40~50대 남성 관광객 감소, 관광지 노후화 및 콘텐츠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메가 이벤트 개최에 의한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장경세계문화축전과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개최되었던 2013년에는 관광객수가 증가하였고,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개최한 2016년도에는 감소추세였던 관광객수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메가 이벤트 개최는 관광객의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대형 메가이벤트 방문객수

(단위 : 명)

축제명	개최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2013년)	해인사	1,507,666	713,939	492,240	707,359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2013년)	산청한의학박물관	2,096,807	93,467	145,774	187,154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2016년)	당항포	271,376	291,398	365,225	1,345,047
합계		3,875,849	1,098,804	1,003,239	2,239,560
경남 관광여행 참가자수		8,489,623	7,700,348	6,721,514	7,087,543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특히, 메가 이벤트 및 축제의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관광수요 및 지출비용의 신뢰도 때문에 직접적 파급효과만 산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2013년 산청전통의약엑스포는 2,985억원, 문화체육관광부 명예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유료화 전환 2014년에 1,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는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 구조개선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 생산성과 지역주민 소득 증대, 지역 정주기반 확대 등 해당 지역 내 관광산업을 통해 구현(김성형, 2005)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문화관광축제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408,700	-	-	-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298,500	-	-	-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	-	-	85,600
문화관광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3,520	3,200	24,680	12,083
	통영한산대첩축제	23,949	32,000	22,494	26,168
	마산가고파국화축제	52,300	48,900	36,465	38,979
	함양산삼축제	-	-	-	12,488
진주남강유등축제		150,000	100,000	-	-
진해군항제		-	86,000	71,400	76,600

자료 : 연도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부산일보(2014-04-14일자) 진해군항제 306만 명 찾아 즐겼다, 네이버뉴스(2015-04-14일자)진해 군항제 관광객 251만명...714억원 파급효과, 경남매일신문(2016-05-13일자)'제54회 진해군항제·군악의장페스티벌' 평가보고회 nsp통신(2013-10-21일자), [한국대표축제] "역사와 스토리텔링이 함께한" 2013 진주남강유등축제 총결산(14) 경상남도·합천군(2014),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분석 산청군(2013),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결과 및 운영성과 경남신문(2016-09-04일자), "고성공룡엑스포, 관광발전 기여·공무원 동원 문제"

다음으로 경남의 성별·연령별 관광수요에서 주목할 점은 40~50대 남성관광객이 2013년 284만명에서 2016년 152만명으로 131만명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여성관광객은 20대, 40~50대에서 증가하여 경남은 모녀(母女), 자매(姊妹) 여행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성별-연령별 경남 관광객 수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6년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관광객수	비 율	관광객수	비 율	관광객수	비 율	관광객수	비 율
15~19세	453,028	4.4	418,890	4.1	205,407	2.2	186,828	2.0
20대	415,024	4.0	458,022	4.4	540,224	5.7	770,778	8.1
30대	501,669	4.9	624,609	6.0	363,846	3.8	348,115	3.7
40대	1,436,251	13.9	1,494,564	14.5	617,073	6.5	1,266,660	13.4
50대	1,405,751	13.6	1,182,956	11.4	908,237	9.6	1,459,043	15.4
60대 이상	892,751	8.6	1,053,863	10.2	1,319,121	13.9	1,497,027	15.8
합 계	5,104,473	49.4	5,232,902	50.6	3,954,144	41.7	5,528,450	58.3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2017), 경남 관광수요 진단 및 전략과제 도출.

관광지의 경우는 수명주기가 존재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광지의 개발 정도를 단계별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총 6가지 단계(개입, 발전, 강화, 정체, 회복, 쇠퇴)로 구분되고 있다⁸⁾. 경남의 관광지는 개장한지 20년, 그 이상되는 관광지 수명주기 상 정체 단계의 기존 유명 관광지가 많았는데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쇠퇴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11> 관광지별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 타
한산도제승당	281,290	219,863	219,822	198,133	1976년 정화사업 및 관리사무소 설치
부곡하와이	-	-	220,860	196,568	1979년 개장→2017년 폐장
화왕산군립공원	141,984	132,200	120,231	92,873	1983년 지정
수송대관광지	228,926	98,980	151,504	125,153	1990년 준공→ 2017년 목재문화체험장(추가)
가조관광지	227,321	133,708	134,131	117,259	2000년 임시 개장→2005년 기반시설 준공 →2015년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
포로수용소유적공원	679,224	672,769	582,995	476,015	1999년 개장
최창판덕	667,522	446,141	385,800	357,843	2001년 개장 → 2003년 입장료 징수 → 2015년 입장료 인상(1,000원→2,000원)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2017), 경남 관광수요 진단 및 전략과제 도출.

8) 김중재·이경진(2015), 국내 관광지 수명주기 분석 연구

국내여행 총비용을 살펴보면 전국은 1.8% 상승하였으나, 경남은 0.6%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관광수요에 비해서는 지출비용의 감소율은 낮은 상황이다. 산업연구원(2016년)에서 관광지출에 따른 내수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5% 국내관광 지출액 증가 시 1조 2,000억원, 10% 증가시 2조 5,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관광객 수 증가에만 집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관광객 지출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표 12> 연도별 국내여행 총비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율
총비용	23,891,080	23,234,315	24,845,762	25,395,649	25,748,487	1.8
서울	1,973,637	2,019,501	2,507,531	2,412,636	2,319,825	3.4
부산	1,565,903	1,193,098	1,185,738	1,398,278	1,418,775	△3.8
대구	690,052	463,731	460,485	509,340	521,713	△9.4
인천	550,873	506,116	595,083	751,062	814,597	8.7
광주	352,628	289,142	396,755	424,422	327,180	△4.5
대전	424,277	436,367	528,984	556,168	593,890	7.9
울산	282,805	259,101	232,282	242,315	266,215	△1.9
세종	-	-	38,338	32,248	73,531	18.6
경기	2,504,701	2,654,917	3,024,650	3,334,391	3,468,659	7.8
강원	2,721,558	2,708,865	3,212,801	2,811,697	2,907,362	1.1
충북	900,119	852,207	916,489	888,732	941,048	1.0
충남	1,700,613	1,932,952	2,336,759	2,420,004	2,100,551	4.4
전북	1,361,063	1,321,265	1,433,075	1,522,955	1,680,849	5.0
전남	2,168,047	1,806,189	1,720,072	1,921,492	2,041,149	△2.2
경북	2,225,463	2,314,500	2,081,380	1,820,097	1,704,563	△7.1
경남	2,084,896	1,971,313	2,106,994	1,948,596	2,053,968	△0.6
제주	2,384,444	2,505,052	2,068,345	2,401,216	2,514,613	0.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국민여행실태조사

다. 외래 관광수요

2016년 방한 관광객은 17백만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은 사드 등으로 인한 한중간의 갈등으로 방한 관광시장이 위축되었으며, 특히 중국관광객이 2016년 8백만명에서 2017년 4백만명으로 48.3%가 감소하였다. 경남 방문 외국인관광객은 전국대비 2~3% 수준에 불과하며, 주요 방문지로는 거제(바람의 언덕, 외도) 6.8%, 통영(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5.6%, 남해(독일마을) 2.3% 순으로 해안지역 방문율이 높은 실정이다.

<표 13> 연도별 관광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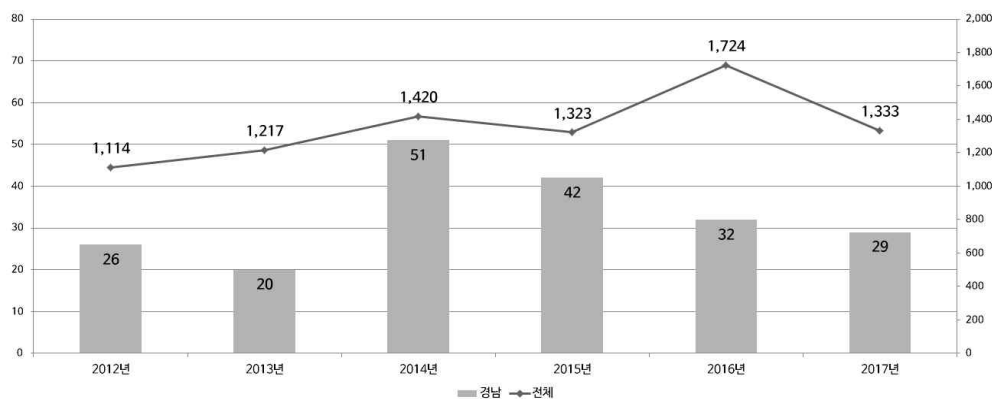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 체	11,140,028	12,175,550	14,201,516	13,231,651	17,241,823	13,335,758
국 적 별	중 국	2,836,892	4,326,869	6,126,865	5,984,170	4,169,353
	일 본	3,518,792	2,747,750	2,280,434	1,837,782	2,311,447
	대 만	548,233	544,662	643,683	518,190	925,616
	미 국	697,866	722,315	770,305	767,613	868,881
	홍 콩	360,027	400,435	558,377	523,427	658,031
	태 국	387,441	372,878	466,783	371,769	498,511
	필리핀	331,346	400,686	434,951	403,622	448,702
	베트남	106,507	117,070	141,504	162,765	251,402
기 타	2,352,924	2,542,885	2,778,614	2,662,313	3,247,627	3,130,477
경 남	267,361	206,984	511,255	423,413	327,595	293,38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국민여행실태조사

<그림 5> 연도별 외래방문객 수

(단위 : 백만일)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국민여행실태조사

경남 방문 외래관광객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60천명), 중국(37천명), 대만(32천명) 순이며 국내 방문 주요 외래관광객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국적별 경남방문 외래 관광객 수

(단위 : 명·%)

구분	방문객 수	비율	구분	방문객수	비율
일본	60,098	2.6	러시아(연방)	7,572	2.8
중국	37,524	0.9	독일	6,372	5.8
대만	32,397	3.5	말레이시아	5,538	1.8
중동	19,749	2.0	영국	5,419	4.3
미국	19,115	2.2	캐나다	4,759	2.7
홍콩	15,793	2.4	인도네시아	4,155	1.8
베트남	12,990	4.0	인도	4,073	3.3
필리핀	12,564	2.8	프랑스	2,955	3.2
태국	10,469	2.1	싱가포르	1,513	0.7

주 : 2017년 외래관광객실태조사와 입국객 통계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2016년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 1인 평균 지출경비는 US\$1,625.3이며, 1일 평균 지출비용은 US\$318.4로 나타났다.

<표 15> 1인 평균 지출 경비 및 1일 평균 지출경비

(단위 : US\$·%)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율
1인 평균 지출경비	1,529.5	1,648.2	1,605.5	1,712.5	1,625.3	1.4
1일 평균 지출경비	291.3	290.0	315.8	328.1	318.4	2.1

주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외래관광객실태조사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2,300만명, 생산유발액은 117.2조으로 추정하였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방한 중국관광객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아 달성이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나 관광산업의 외화가득율은 88%로 한국 대표 수출품목인 자동차 71%, 휴대전화 52%, 반도체 43%⁹⁾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이 필요하다.

<표 16> 2020년 방한 관광객 및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단위 : 만명·조원)

구분	방한 관광객수		생산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취업유발	
	2014년	2020년*	2014년	2020년*	2014년	2020년*	2014년	2020년*
전체	1,217	2,300	33.5	117.2	15.1	54.5	50	153

*추정치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숫자로 보는 한국관광

신동아(2015-03-20일자) 관광객 2300만 생산유발 80조(2020년)

- 9) 제주도민일보(2013-11-28일자), [전문] 제주관광 1천만 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Ⅲ. 관광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1. 관광산업의 분류

관광산업은 UNWTO(국제연합세계관광기구)에서 숙박·음식·쇼핑·운송·문화·스포츠·레저·지역특화 산업 등 소비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하동원, 2017),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분류체계는 대표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산업분류와 통계청의 관광산업 특수분류가 있으며, 관광진흥법상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17>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의 분류

구 분		내 용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이나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민속촌·해수욕장·수렵장·동물원·식물원·수족관·온천장·동굴자원·수영장·활공장·체육시설·산림휴양시설·박물관·미술관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17>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의 분류(표계속)

구 분			내 용
관광객이용 시설업	종합 유양업	제1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 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 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 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 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 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 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 유람선	일반관광 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 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업
	관광공연장업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 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 치하여 운영하는 업
	국제회의기획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 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카지노업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 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 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유희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희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 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 게 하는 업
	관광극장유희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희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희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 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관광식당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 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17>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의 분류(표계속)

구 분		내 용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관광사진업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업
	관광펜션업(휴양펜션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케도업	「케도운송법」에 따른 케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광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한옥체험업	한옥에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체험에 딸린 식사·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면세업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통계청은 국가경쟁력 제고 및 비중 증대 산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관련 분류 항목으로 ‘특수목적 산업분류’를 별도로 재구성하였으며(산업연구원, 2015),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관광사업체의 사업특성에 따라 핵심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역할에 따라 상호의존, 부분적용, 지원산업으로 영역이 분류¹⁰⁾되고 있다.

<표 18> 관광산업 특수분류

구 분		내 용
핵심관광산업	관광쇼핑업(도매업 제외)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관광 운수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설비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관광숙박업	관광객의 숙박 또는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 또는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즉석식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다과류 및 비알콜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
	카지노업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자료 :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8443).

10)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8443)

<표 18> 관광산업 특수분류(표계속)

구 분	내 용
상호의존 관광산업	관광 건설업
	관광 건물종합건설업, 관광 토목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레저용 의복 소매업,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상호의존 관광산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여행자 보험업, 금융서비스업
	레저장비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레저 및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비인증 쇼핑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소매업은 아니지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 및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육상운송업, 부분관광 수상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청소년수련원, 관광 비인증 모델업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
	부분관광 공연장업
	-
관광지원산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
	관광 정보 서비스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기타 관광 서비스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관광 공공기관
관광지원산업	문화 및 관광행정, 관세행정,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관광 교육서비스업
	교육기관, 기타 관광 레저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관광지원산업	관광단체
	회원단체,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자료 :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8443).

2. 관광산업 규모

국내 관광산업의 GDP 기여율은 2016년 현재 5.1%이며, 고용비중은 5.8%로 2012년 이후 고용비중이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9>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 및 관광산업 고용인수 · 고용비중

(단위 : 천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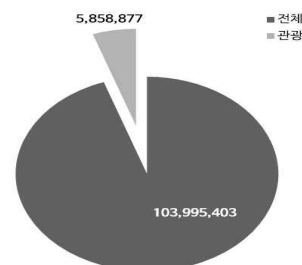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관광산업 비중	5.1	5.2	5.2	5.1	5.1
고용인수	1,368	1,417	1,458	1,444	1,509
고용비중	5.5	5.7	5.7	5.6	5.8

주 : 고용인수는 관광관련 간접 분야가 포함된 결과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숫자로 보는 한국관광.

2015년 경남 지역내 총생산(GRDP)은 103,995,403백만원이며, 이 중 관광산업¹¹⁾ 총생산은 연관산업 포함하여 5,858,877백만원(5.6%)으로 나타났다(경남통계연보)

(단위 : 백만원)



11) 관광 관련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으로 산출하였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¹²⁾ 현황으로 살펴보면, 관광산업 사업체는 경남
 초 산업 대비 약 32%를 차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숙박 및 음식
 점업이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표 20> 관광산업 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산업 사업체현황		전체	3,602,476	3,676,876	3,812,820	3,874,167	3,950,192
		경남	242,123	248,913	258,713	262,950	268,906
관광 산업	합계	전체	1,142,415	1,161,837	1,185,883	1,191,193	1,225,675
		경남	78,325	80,318	82,841	82,938	85,695
		(경남 초산업 대비 비율)	(32.3)	(32.3)	(32.0)	(31.5)	(31.9)
	운송업	전체	364,209	371,639	378,884	379,431	385,837
		경남	18,638	19,284	20,426	20,297	20,668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673,767	686,225	703,364	710,699	729,395
		경남	53,391	54,746	56,117	56,458	58,1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체	104,439	103,973	103,635	101,063	110,443
경남		6,296	6,288	6,298	6,183	6,845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관광산업 종사자는 경남 초 산업 대비 약 16%를 차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며, 그 중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관광산업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산업 종사자 현황		전체	18,569,355	19,173,474	19,899,786	20,889,257	21,259,243
		경남	1,250,462	1,275,688	1,325,862	1,365,599	1,379,047
관광 산업	합계	전체	3,270,389	3,366,127	3,485,333	3,581,579	3,675,038
		경남 (경남 초산업 대비 비율)	201,293 (16.1)	209,618 (16.4)	218,964 (16.5)	219,451 (16.1)	227,532 (16.5)
	운송업	전체	1,009,660	1,014,030	1,047,788	1,096,392	1,109,949
		경남	51,647	52,210	56,828	57,145	58,348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1,914,917	1,991,476	2,071,581	2,118,353	2,165,772
		경남	130,928	137,233	141,402	141,297	146,3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체	345,812	360,621	365,964	366,834	399,317
		경남	18,718	20,175	20,734	21,009	22,84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2)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미등록 사업체도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
 사임

통계청 분류에 의한 2016년 기준 관광산업 매출액은 16.2조원으로 운송업 7.3조원, 숙박 및 음식점업 7.4조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1.5조원으로 나타났다.

<표 22> 2016년 관광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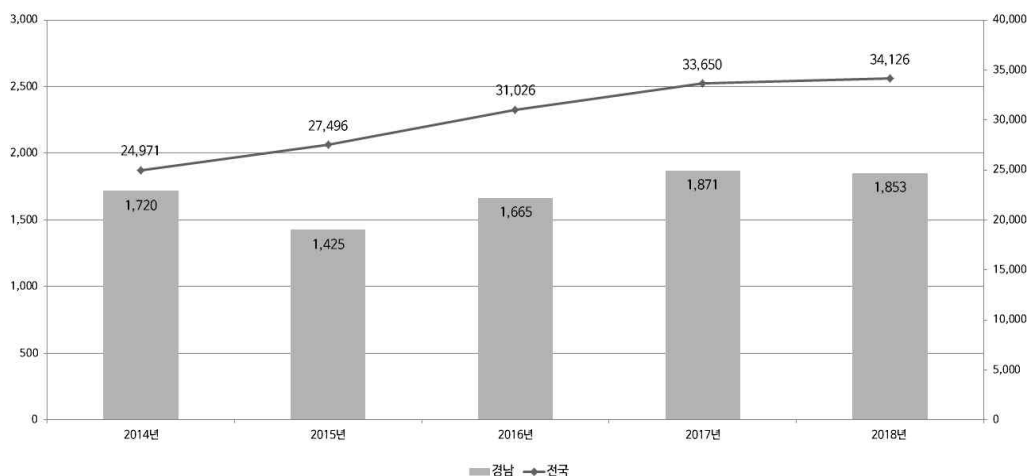
구 분		매출액	
전체		5,462,950,142	
		경남	
관광 산업	합계	전체	356,013,194
		경남	16,233,618
	운송업	전체	176,994,497
		경남	7,278,852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131,978,586
		경남	7,419,62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체	47,040,111
		경남	1,535,137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관광진흥법¹³⁾에 의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의 관광산업 사업체수는 2014년 대비 연평균 7.4%, 경남은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유원시설업이 2016년부터 급증하였는데, 이는 ‘기타유원시설업’인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등 소규모 유·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수 증가에 기인한 것¹⁴⁾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연도별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연도별 관광사업체 현황.

13) 관광객을 위한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등록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14) 문화체육관광부(2017-10-19일자), 2016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발표

<표 23> 연도별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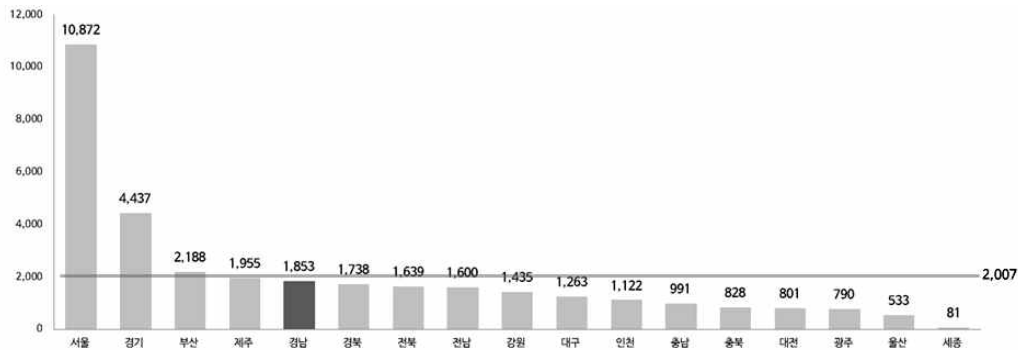
구 분	전국					경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여행업	17,585	18,544	19,848	20,900	21,115	1,283	897	936	1,004	996
관광숙박업	1,247	1,476	1,740	1,949	1,992	69	82	89	104	107
관광객이용시설업	223	1,057	3,239	3,819	3,877	25	98	205	259	265
회의업	596	702	751	851	869	12	19	17	16	16
카지노업	17	17	17	17	16	-	-	-	-	-
유원시설업	552	849	1,510	2,136	2,184	86	63	193	228	209
관광편의시설업	4,751	4,851	3,921	3,978	4,073	245	266	225	260	260
합계	24,971	27,496	31,026	33,650	34,126	1,720	1,425	1,665	1,871	1,853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연도별 관광사업체 현황.

2018년 1분기 전국의 관광사업체수는 34,126개로, 서울이 10,872개, 경기 4,437개로 전국대비 4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남은 1,853개로 전국대비 5.4%(5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지역별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8년 1분기 관광사업체 현황.

사업별로 살펴보면, 여행업의 비중이 61.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관광편의시설업 11.9%, 관광객이용시설업 11.4%로 나타났다.

<표 24>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여행업	8,020	1,487	944	577	630	567	322	57	2,451	533
관광숙박업	412	148	25	134	15	19	16	0	161	137
관광객이용시설업	1,059	154	44	134	27	12	21	3	566	485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8년 1분기 관광사업체 현황.

<표 24> 관광사업체 현황(표계속)

(단위 : 개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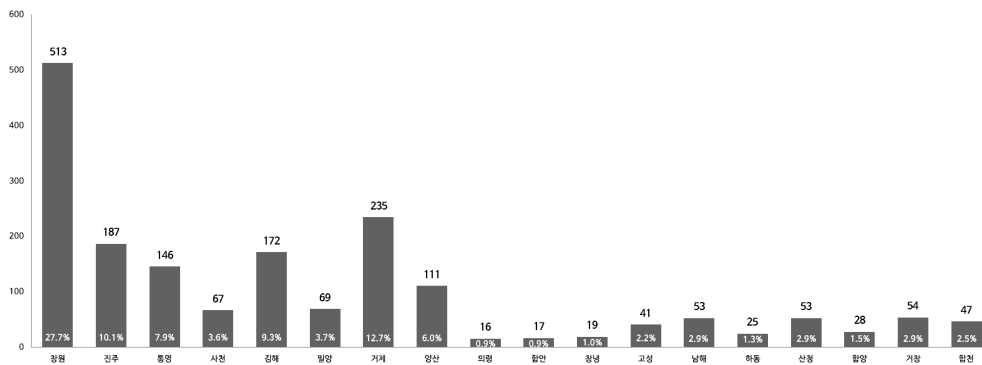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회의업	555	64	35	15	21	33	8	3	45	19
카지노업	3	2	1	1	0	0	0	0	0	1
유원시설업	223	168	75	117	41	79	74	13	545	102
관광편의시설업	600	165	139	144	56	91	92	5	669	158
합계	10,872	2,188	1,263	1,122	790	801	533	81	4,437	1,435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평균	구성비
여행업	502	528	892	733	781	996	1,095	21,115	1,242	61.9
관광숙박업	33	41	48	204	81	107	411	1,992	117	5.8
관광객이용시설업	152	179	255	154	266	265	101	3,877	228	11.4
회의업	4	2	7	3	14	16	25	869	51	2.5
카지노업	0	0	0	0	0	0	8	16	1	0.0
유원시설업	78	98	73	101	128	209	60	2,184	128	6.4
관광편의시설업	59	143	364	405	468	260	255	4,073	240	11.9
합계	828	991	1,639	1,600	1,738	1,853	1,955	34,126	2,007	100.0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8년 1분기 관광사업체 현황.

경남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지역이 1,500개소, 군지역이 353개소로 시지역(80.9%)에 집중되어 있으며, 창원이 513개소(27.7%), 거제 235개소(12.7%), 진주 187개소(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시·군별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8년 1분기 관광사업체 현황.

<표 25> 시·군별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합계
창원	354	23	16	15	67	38	513
진주	144	2	11	-	23	7	187
통영	53	27	31	-	3	32	146
사천	34	5	7	-	12	9	67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8년 1분기 관광사업체 현황.

<표 25> 시·군별 관광사업체 현황(표계속)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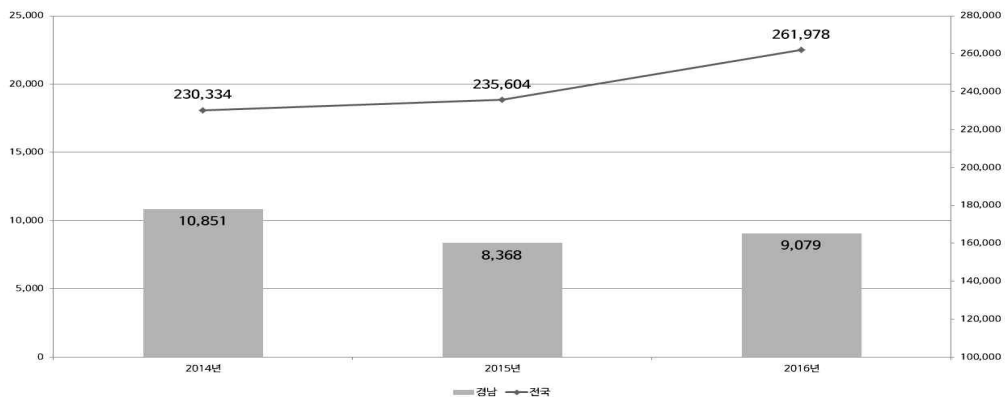
구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합계
김해	111	3	7	1	28	22	172
밀양	20	2	33	-	4	10	69
거제	104	23	23	-	21	64	235
양산	62	3	18	-	24	4	111
의령	9	-	4	-	1	2	16
함안	11	-	3	-	1	2	17
창녕	6	5	3	-	3	2	19
고성	12	1	18	-	6	4	41
남해	21	7	13	-	1	11	53
하동	4	2	10	-	4	5	25
산청	15	2	21	-	1	14	53
함양	5	1	14	-	1	7	28
거창	17	-	10	-	6	21	54
합천	14	1	23	-	3	6	47
합계	996	107	265	16	209	260	1,853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8년 1분기 관광사업체 현황.

전국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2016년 기준 261,978명으로, 서울이 전국대비 37.1%(97,280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은 9,078명으로 전국대비 3.5%(8번째)로 나타났다. 전체 종사자 수는 11.2%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종사자는 증가하였으나,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관광편의시설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회의업은 증가한 반면 종사자는 전년대비 16.8% 감소하였는데,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는 2015년 448개에서 558개로 증가, 20인 이상 사업체는 2015년 160개에서 2016년 132개로 감소하여 업체 규모가 소규모화된 경향을 알 수 있다¹⁵⁾.

<그림 9> 연도별 종사자 수

(단위 : 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5) 문화체육관광부(2017-10-19일자), 2016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발표

<표 26> 연도별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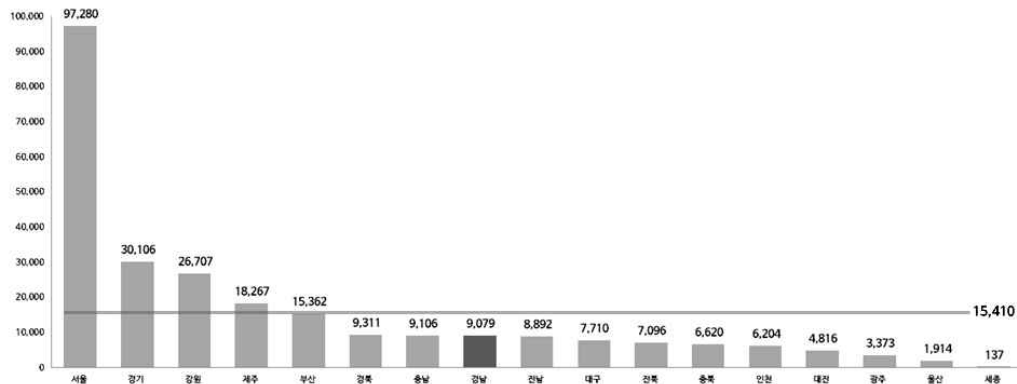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전국			경남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여행업	69,400	84,558	98,421	6,008	3,160	3,616
관광숙박업	67,465	70,305	73,631	1,959	2,144	2,372
관광객이용시설업	10,671	11,065	17,421	304	760	872
회의업	17,330	15,131	12,596	280	123	110
카지노업	8,931	9,418	9,115	-	-	-
유원시설업	17,031	17,224	23,683	694	548	918
관광편의시설업	39,506	27,902	27,110	1,605	1,634	1,190
합계	230,334	235,604	261,978	10,851	8,368	9,07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림 10> 지역별 관광 종사자 수

(단위 : 명)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27> 지역별 관광 종사자 수

(단위 : 명)

구 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합계
서울	46,758	27,214	1,878	8,860	2,134	3,853	6,583	97,280
부산	5,628	3,804	1,150	1,308	745	799	1,928	15,362
대구	4,104	730	135	342	180	851	1,369	7,710
인천	2,481	1,318	359	46	662	313	1,025	6,204
광주	1,616	469	61	251	-	192	785	3,373
대전	1,982	961	461	373	-	295	745	4,816
울산	465	642	66	7	-	163	571	1,914
세종	91	-	10	4	-	32	-	137
경기	10,302	4,468	2,937	888	-	5,846	5,664	30,10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27> 지역별 관광 종사자 수(표계속)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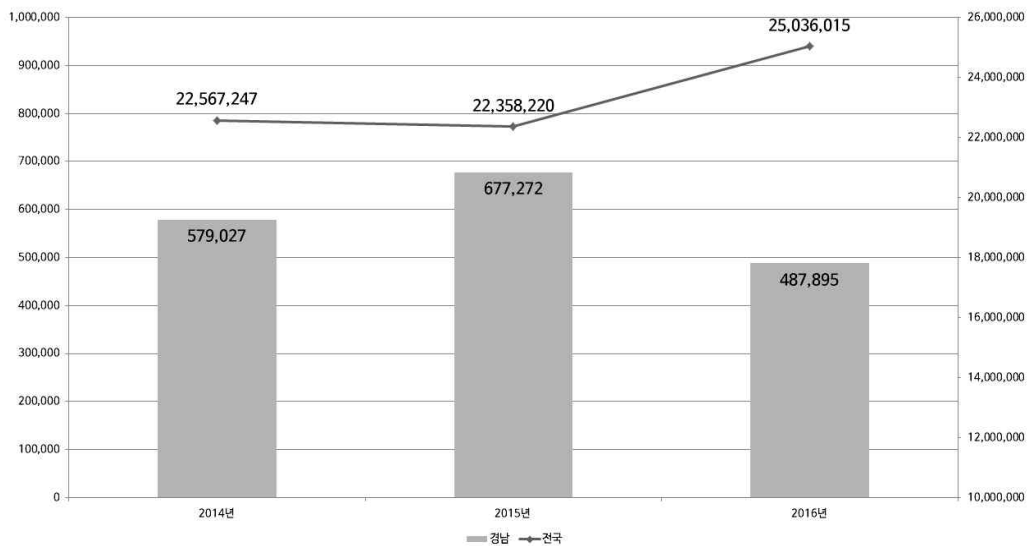
구 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합계
강원	2,347	14,511	1,767	138	3,737	3,075	1,131	26,707
충북	3,781	1,121	1,054	20	-	349	294	6,620
충남	2,216	1,320	2,791	6	-	2,221	552	9,106
전북	3,434	797	909	67	-	573	1,315	7,096
전남	2,373	2,979	896	3	-	1,462	1,178	8,892
경북	2,921	2,598	1,154	145	-	1,008	1,485	9,311
경남	3,616	2,372	872	110	-	918	1,190	9,079
제주	4,306	8,327	920	28	1,657	1,733	1,296	18,267
합계	98,421	73,631	17,421	12,596	9,115	23,683	27,110	261,97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광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2016년 25조 360억원으로 모든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2.0% 증가하였으며, 경남은 4,878억원으로 전년대비 38.8% 감소하였다. 특히 업종별로는 여행업은 약 1/3, 회의업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연도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28> 연도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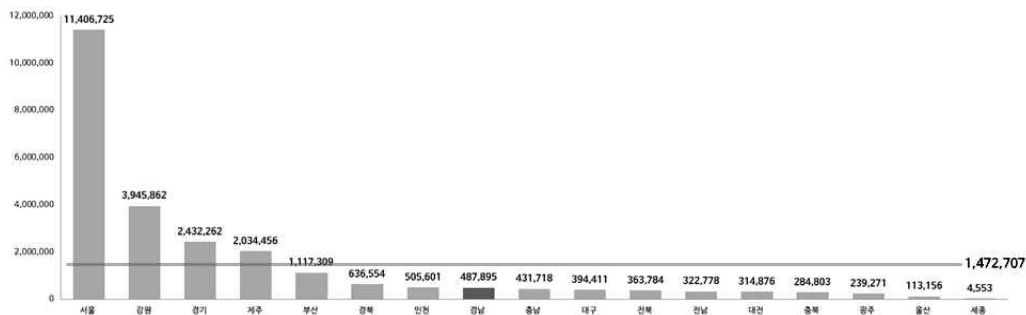
구 분	전국			경남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여행업	5,321,988	6,472,575	7,642,672	162,773	304,566	99,350
관광숙박업	7,930,628	7,859,586	8,268,323	283,158	172,101	208,973
관광객이용시설업	814,120	789,116	885,160	21,426	61,444	33,493
회의업	2,442,369	1,760,254	1,837,698	16,437	15,932	6,277
카지노업	2,799,221	2,804,413	2,903,309	-	-	-
유원시설업	1,498,173	1,538,658	1,929,240	37,901	61,408	91,184
관광편의시설업	1,760,749	1,133,617	1,569,612	57,333	61,820	48,619
합계	22,567,247	22,358,220	25,036,015	579,027	677,272	487,89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관광사업체 매출액은 2016년 기준 25,036,015백만원, 서울이 11,406,725백만원으로 전국대비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은 487,895백만원으로 전국대비 1.9%(8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지역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29> 지역별 관광사업체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합계
서울	4,836,582	3,290,411	66,990	1,357,094	799,283	489,338	567,027	11,406,725
부산	268,654	333,483	112,534	66,800	187,771	21,287	126,780	1,117,309
대구	133,670	73,988	5,092	57,556	16,733	46,053	61,319	394,411
인천	191,677	114,741	36,037	8,659	95,881	11,704	46,903	505,601
광주	118,805	35,778	303	36,342	-	8,222	39,821	239,27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표 29> 지역별 관광사업체 매출액(표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합계
대전	108,174	88,155	16,124	29,006	-	20,764	52,653	314,876
울산	17,807	46,888	714	1,080	-	11,867	34,800	113,156
세종	3,180	-	507	40	-	826	-	4,553
경기	747,443	453,119	100,128	211,250	-	607,169	313,154	2,432,262
강원	175,137	1,896,890	56,562	34,541	1,627,611	111,192	43,929	3,945,862
충북	87,157	101,402	57,434	1,200	-	23,680	13,930	284,803
충남	63,371	171,705	68,485	2,000	-	99,937	26,220	431,718
전북	157,401	99,066	15,779	6,409	-	39,100	46,029	363,784
전남	60,532	163,838	18,867	240	-	56,795	22,506	322,778
경북	150,901	308,248	58,071	17,766	-	68,670	32,898	636,554
경남	99,350	208,973	33,493	6,277	-	91,184	48,619	487,895
제주	422,830	881,639	238,041	1,440	176,030	221,451	93,025	2,034,456
합계	7,642,672	8,268,323	885,160	1,837,698	2,903,309	1,929,240	1,569,612	25,036,015
평균	449,569	486,372	52,068	108,100	170,783	113,485	92,330	1,472,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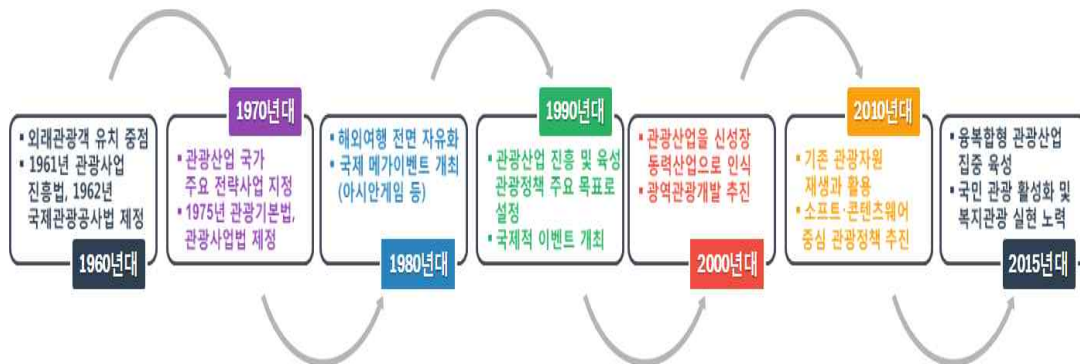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3. 관광산업 정책 현황

가. 국내 관광정책의 기초 변화

국내 관광정책 담당부서는 1954년 2월 교통부 육운국 관광과를 시초로 볼 수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1960년대부터 관광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1970~1980년대는 기반확충기로 관광산업이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서 관광산업 발전과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반면, 1980년대부터는 정책의 기초가 외래관광객 중심에서 국내 관광진흥으로 변화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광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광역 관광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 2007년 이후 국민 국내 관광시장 지속 침체에 따라 규제완화, 관광산업 여건 개선 등 국민 국내관광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였고, 2015년대에는 산업 간 연계와 융합을 관광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보고, MICE, 크루즈, 의료 등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그림 13> 국내 관광정책의 기초 변화 및 특징



<표 30> 국내 관광정책의 기초 변화 및 특징

구분	내용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 등 정부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 추진에 따라 관광산업을 경제 성장 정책의 하위분야로 인식, 외래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둔 정책 전개 1961년 8월 관광사업진흥법, 1962년 4월 국제관광공사법 제정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산업이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지정, 관광산업 발전과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 1973년 관광진흥개발 기금 조성, 1975년 관광기본법, 관광사업법 등 제정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 관광 진흥정책 중심에서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등 국민 국내관광 및 국민 해외관광 동시 추구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하계 올림픽 등 국제 메가이벤트 개최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산업의 중요성 및 가치를 인식, 관광산업 진흥 및 육성을 관광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이후 국민 해외여행 급증 등으로 1991년부터 여행수지적자 기록 1993년 대전 EXP0, 1994년 한국 방문의 해 지정 등 국제적 이벤트 개최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2016), 경남관광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경남발전연구원(2010), 경남 관광진흥 마스트플랜 수립, 한국교통연구원(2003), 특집 여가의 증가와 관광교통: 국내 관광 정책의 추세와 전망, 월간교통 2003-08

<표 30> 국내 관광정책의 기초 변화 및 특징(표계속)

구분	내용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갈 신성장동력으로 인식, 관광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김대중 정부는 관광산업, 관광단지, 관광복지의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 등 광역적 관광개발 계획 및 남북교류에 따른 금강산 관광 시행 •노무현 정부는 관광복지 실현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 등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 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 문화예술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 여행바우처 사업 확대 등 추진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관광자원에 대한 재생과 활용, 소프트웨어·콘텐츠웨어 중심 관광정책 추진 •‘소프트웨어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건설을 문화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4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정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비자제도 개선 등으로 외래관광객 1천만명 달성
2015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조관광, 국민행복증진, 국제 강국, 융합 확산, 지역관광 등을 국정비전 및 목표로 설정 •창조경제시대에 산업 간 연계와 융합을 관광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보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부가 융복합형 관광산업 집중 육성 •대체휴일제 도입, 올해의 문화관광도시 선정, 소외계층 여행바우처 지원 등 국민 관광 활성화 및 관광복지 실현 등을 통해 국민 국내관광 참여일수와 관광소비액 확대 노력 전개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2016), 경남관광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경남발전연구원(2010), 경남 관광진흥 마스터플랜 수립, 한국교통연구원(2003), 특집 여가의 증가와 관광교통: 국내 관광 정책의 추세와 전망, 월간교통 2003-08

나. 문재인 정부 관광산업 정책 현황

문재인 정부는 관광 분야의 국정과제로 관광여가 사회실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래관광 다변화 등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표 31> 문재인 정부 관광 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	내용
관광여가 사회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18 제도설계 추진 등), 열린 관광지 확대(5년간 100개 조성 지원),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18년부터 적용)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2017년에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개선 지속, 관광품질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18년~)
관광산업 육성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운영, '22년까지 800개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융합 관광산업 육성(VR·AR 콘텐츠 제작 등)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관광두레 지속 확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글로벌' 관광지 육성
외래관광 다변화	•2022년까지 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명 등 관광객시장 다변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지원 등), 관광산업 펀드 조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문재인 정부의 관광 분야 국정과제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국민, 지역/주민, 외래관광객, 관광산업을 정책 대상으로 '모두를 위한 관광선진사회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4대 전략,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32>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주요 관광정책 현황

전략	내용
심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 사회 실현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관광 향유의 제도적 기반 마련 •생애주기별 국내관광 지원체계 구축 •국민체감형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신성장 역량강화로 관광산업 경쟁력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구축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핵심인력 양성 및 창업확대로 관광 일자리 창출 •금융지원과 규제개선으로 관광산업 활력제고
함께하는 지역관광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관광 매력 및 서비스 고도화 •지역관광 개발 정책수단 선진화 •관광개발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지역관광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외래관광객 유치의 다변화 고도화를 통한 국제관광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한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강화 •외래관광객 편의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외래관광객 지역방문 촉진 •국제관광 교류·협력 활성화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국민체감형 관광 서비스 등 복지적 측면과 지역균형 발전, 4차 산업혁명 등 공정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관광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도 정부 정책의 기조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반영한 신규정책의 개발 및 보강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정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정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향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혁신)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관광 분야에서 국민 1인당 여행 일수를 2016년 9.4일→2018년 9.8일, 관광산업 일자리를 2016년 26.2만 명→2018년 27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관광산업 관련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부문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적 재생, 지역별 관광콘텐츠 특화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유희 산업시설, 점포 등 쇠퇴한 공간의 문화공간화 및 문화 콘텐츠, 문화 전문인력 도입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며, 테마여행 10선 사업에서는 권역별 관광자원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 발굴을 지원하고,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는 등 지역 연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부분에서는 봄·가을·겨울 여행주간 운영, 연가 사용 촉진 프로모션과 숨겨진 관광지 발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을 통해 국민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부문에서는 관광벤처보육센터, 콘텐츠·관광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한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관광 분야 펀드 조성 등 관광 사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 혁신적 관광기업 육성과 함께 관광두레, 고급(럭셔리 관광), 웰니스 관광 등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일본·미국 등의 주력시장, 인도네시아·베트남·대만 등 도약시장, 인도·몽골·카자흐스탄 등 신흥시장, 러시아·중동 등 고부가시장으로 구분하여 시장별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주요 정책 현황

추진전략	세부전략	내용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지역 간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재생) 문화적 공간+문화 콘텐츠+문화 전문인력 융합 통해 지역 재생 •(지역 관광) 지역별 관광콘텐츠 특화, 서비스 전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마여행 10선, 관광품질인증제 도입, 소수언어권(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아랍어 등)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지역형 코리아투어카드 출시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문화의 일상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 사시사철 즐겁고, 구석구석 새로운 국내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봄·가을·겨울 여행주간, 연가 사용 촉진 프로모션,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미개방 유적지 등 숨은 관광지 발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19개소), 국립공원 캠핑장 조성(2개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산업생태계 성장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벤처보육센터: 사업모델 개발,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등 40개 기업 지원 •(투자) 상황별(투자-보증-대출이자) 맞춤지원 •(연구개발) 문화 특성을 살리는 연구와 기술응용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기술(문화·콘텐츠·관광) 연구개발 5개년 계획 수립 및 문화기술 전담 연구기관 확충 •(일자리) 현장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관광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관광전문인력포털(관광인) 고도화 등
	신규 서비스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콘텐츠)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현실: 대·중소기업 협업 콘텐츠(5개), 중소기업 창의콘텐츠(11개), 가상현실 실게임(15개) 제작지원, VR종합지원센터 구축(일산 빛마루) •(관광산업) 국민이 산업에 참여, 관광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 공유 민박업 등 he산업 융합 등 통해 새로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발굴 및 역량 강화('18년, 80개), 테마여행 10선 사업 연계, 청년창업 인센티브 제공, 관광두레(2인 이상 PO운영 지역 확대 등), 고급(럭셔리) 관광(전통문화, 명인, 미식, 한류 등 발굴 및 숙박·여행 등 관광서비스와 융합 고부가 상품 개발, 웰니스 관광 육성
	해외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한 관광) 방한관광시장 균형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시장(중국·일본·미국), 도약시장(인니·베트남·대만 등), 신흥시장(인도·몽골·카자흐스탄 등), 고부가시장(러시아·중동)으로 분류 방한시장 관리 체계화 -외국인 선호 반영 테마별 관광 콘텐츠 선정 및 상품화, 무슬림 이동식 기도실 설치, 신흥시장 대상 단체비자 도입 등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주요업무계획.

(2)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는 문재인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기조를 토대로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관광사업체 지원, 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관광교육지원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관광산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창업지원·일자리 창출 분야의 관광두레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된 지속사업으로 이는 지역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활동가인 관광두레피디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7월 관광벤처보육센터를 설립하여 관광벤처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홍보판촉·사업자금·컨설팅·교육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관광벤처사업의 종합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 관광사업체 지원·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 중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MICE 사업체 대상 국제회의,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단체, 국제 이벤트 유치·참가를 지원하는 MICE 사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정책으로 2018년부터 기존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사업을 통합하여 숙박,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등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고, 의료관광산업, MICE 등 분야별 온·오프라인 채널 구축을 통해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교육지원 정책 분야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고교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 정보 통합제공, 구인/구직자 채용 종합 정보제공 등 관광 in 홈페이지 관리·운영 등을 담당하는 관광인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34>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 관련 주요 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내용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관광두레	•지역주민들이 자발적·협력적으로 사업체를 설립,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알선, 체험, 레저, 휴양 등 관광사업의 성공적 창업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및 관광두레피디 육성
	관광벤처보육센터	•관광벤처기업들을 체계적으로 보육하고, 기업 간 협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기업의 창업 성공을 지원하고 건강한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구축
	관광벤처사업	•관광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판촉, 사업자금, 컨설팅, 교육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자료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to.visit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07-12일자), 관광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표 34>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 관련 주요 사업 현황(표계속)

구분	사업명	내용
관광사업체 지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	•대한민국테마여행10선 권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예정인 기업(법인 및 개인)이 10선 사업지역 권역 중 선택하여 응모→사업비 지원
	MICE 사업지원	•국제회의,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단체, 국제 이벤트, 전시박람회 지원금 제공
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기존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사업을 통합, 숙박업(일반·생활),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등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국가적 차원의 인증제도
	베니키아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브랜드인 베니키아 운영을 통해 예약 시스템 지원, 글로벌 사이트, 국내외 대중매체, SNS,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홍보·마케팅 제공, 호텔직원교육, 품질관리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우선 선정, 내·외부 간판제작 지원 등 경영지원, 컨설팅업무 지원
	의료관광산업 기반조성 및 해외홍보	•해외 홍보마케팅(한국의료관광 홍보 광고, 언론매체 홍보, 해외 관광 및 의료/건강 박람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채널 운영(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및 의료관광 안내홍보센터 운영), 융복합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판촉(관련업계 대상 상품개발 팸투어, 설명회 개최 등)
	관광홍보 지원	•국문사이트, 해외사이트 관광 관련 비영리 목적의 게시물 게재 지원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및 간행물 번역/감수 지원(무료)
	K-MICE	•K-MICE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국내외 MICE 및 관련 업체, 숙박, 컨벤션 시설 정보제공
관광교육지원	관광인력개발원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고교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관광 교육기관 인증·육성, 관광in 홈페이지 운영 등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언어별(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테마별 전문가 양성 •3년 이상 관련 경력보유자를 대상 VIP 서비스, 관광스토리텔링기법, 보이스코칭, 안전교육 등 공통과정과 한국의 역사문화, 세계유산, 의료관광, 음식관광 등 테마별 심화과정 등 총 70시간의 교과로 구성

자료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to.visitkorea.or.kr),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07-12일자), 관광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1963년 관광진흥법 제39조에 의거, 특수법인 대한관광협회로 설립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관광사업체 지원, 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인력 양성, 국내외 관광 업계 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관광사업체 지원 분야에서는 관광개발기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관광시설 확충, 운영자금 등에 1억원에서 최고 10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행자 보호, 여행사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여행공제회 운영을 통해 국내 여행사 신뢰도 제고 및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 최대 여행박람회인 내나라여행박람회,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되는 한국국제관광전(6월), 부산국제관광전(9월) 등 관광박람회 지원, 내나라 여행 상품 개발 지원, 문화누리 카드 홍보사업 등 관광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인식 개선 사업, 관광안내 인력교육,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증 등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인력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관광 관련 유관기관, 여행사, 호텔, 항공사, 컨벤션업체 등 114개 국내 관광 관련 기관 및 업체로 구성된 PATA 한국지부 운영, 매년 9월 27일에 개최되는 관광의날 기념식, 매년 새해에 개최되는 관광인 신년인사회 운영 등 국내 관광 관련 기관, 관광사업체 교류를 증진하고,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표 35>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 관련 주요 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내용
관광사업체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선정	•관광개발기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업종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관광시설 확충, 관광사업체 운영 등에 융자 지원
	여행공제회	•영업·기획 보증, 지급보증, 계약보증 등 여행자 보호 사업 추진
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내나라여행박람회	•2004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국내 최대 여행박람회로 우수 관광 콘텐츠 및 관광자원 소개
	내나라 여행 상품	•국내·일반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여행주간 연계 홍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연계 신상품 개발 지원 등
	문화누리 카드 홍보사업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에 적합한 맞춤형 국내 여행상품 개발·정보제공
	시·도국제관광전	•서울, 부산에서 각각 열리는 한국국제관광전(6월), 부산국제관광전(9월) 행사 지원사업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인력 양성	현대인식 개선사업	•찾아가는 K스마일 아카데미 운영, 택시운전자 환대실천 교육, 외국인관광객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글로벌 에티켓 제작·배포, 택시기사용 외국어 교육앱 제작·배포 등
	관광안내 인력교육	•관광안내소 소속 안내사 및 자원봉사자, 관광축제 또는 행사 자원봉사자 등 관광안내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한국관광 장학재단	•관광종사자 또는 관광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국내외 관광업계 네트워크 구축	PATA	•국내 관광 관련 기관 및 업체(지자체, 관광 관련 유관기관, 여행사, 호텔, 항공사, 주한외국관광청, 컨벤션업체, PCO, 언론사 등 114개사)로 구성된 PATA 한국지부 운영
	관광의날 기념식	•세계 관광의 날(9월 27일)을 기념, 정부, 국회, 주한 외교사절단, 지역/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진흥 유공자 및 관광업계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날
	관광인 신년인사회	•새해에 관광업계 종사자(정부 및 관광분야 기관·단체장과 업계대표, 주한 외교사절단 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ekta.kr).

(4) 기타

중국은 아웃바운드 관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의 여행허용지역을 지정하는 ADS(Approved Destination Status) 여행허가제도를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과 여행허가제도를 체결한 국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여행사 중 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있으며, KATA(한국여행업협회)가 이를 전담하여 운영중으로 '18년 현재 총 152개가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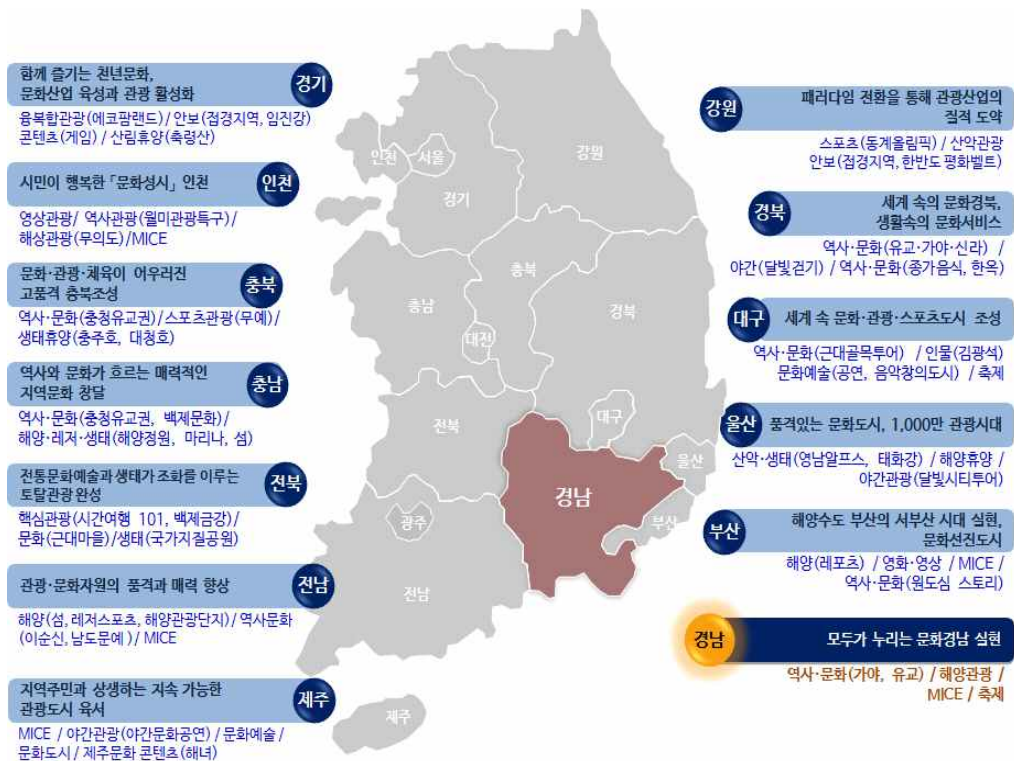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제2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를 전담하여 운영중으로 '18년 현재 의료기관 1,752개, 유치업자 1,482개로 총 3,234개가 지정되어 있다.

기관명	사업명	내용
KATA (한국여행업협회)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여행사 중 유관기관 업무협력, 고품격 관광상품 기획·유치 능력, 과거 법·규정 위반사항, 관광통역안내사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 지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하는 제도

자료 : 한국여행업협회,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명단(2018.05.15. 기준),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_2018.04 개정(안),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

다. 타지자체 관광정책 현황

<그림 14> 타지자체 관광정책 추진현황



주 : 각 지자체별 2018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지자체별 관광정책은 역사·문화, 해양·레저, MICE, 축제 등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며, 관광 기반시설 확충(숙박시설, 쇼핑시설 등) 조성, 관광사업체 육성 및 통계관리, 관광서비스 개선 등의 관광산업 관련 관광정책은 지자체에서 대부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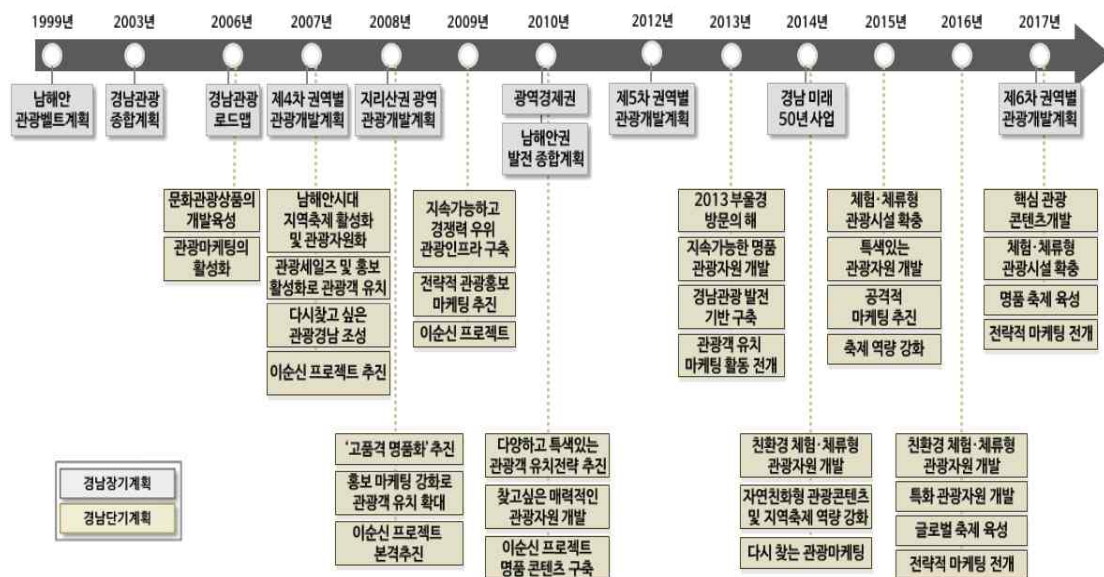
라. 경남 관광정책 현황

경남의 관광산업 관련 조직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개발공사 관광사업본부, 경남컨벤션뷰로, 경남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 등 유관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남도를 정책 컨트롤타워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전반적인 관광정책 수립, 경남개발공사 관광사업부에서는 관광개발 사업 수행 등 담당, 경남컨벤션뷰로는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홍보·마케팅, 인력 양성교육 등 컨벤션 관련 담당, 경남관광협회는 중앙정부, 지자체 위탁업무, 관광종사원 교육,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홍보·마케팅 등 담당,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지역 관광산업, MICE산업 등 육성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18).

(1)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장기정책으로는 법정계획인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광역계획인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등이 있었으며, 단기정책으로는 관광진흥 계획, 상품개발·육성,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5> 경남 관광정책 추진현황



분야별 경남도 관광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숙박비, 광고비, 차량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한국방문의해 관광활성화 사업, 관광객맞이 친절교육, 문화관광해설사교육 등 관광사업체 지원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정책과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 운영, 실크로드 한중대학생 SNS기자단 운영 등 관광 홍보·마케팅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 차원에서 시·군별 축제를 집중 육성·지원하기 위한 경남도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과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생태·녹색자원개발사업, 체험·체류형 관광시설 확충 등의 관광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연계·반영 사업으로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VR·AR 기반 관광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지원 사업과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 관광두레 사업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다수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마케팅 시장 다변화(비중국 중화권, 무슬림, 동남아국가) 등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창원시

창원시는 진해 골목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해설사 양성, 근대문화투어 홍보 및 콘텐츠 강화, 관광수용태세 개선단 운영,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사업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테마별 관광 전문인력 양성 정책과 창원 방문의 해 홍보, 산업관광·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광산업 투자 유치 설명회 등 관광 홍보·마케팅 및 관광산업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6> 창원시 관광산업 정책현황

사업명	내용
진해 골목투어 해설사 양성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분야 골목투어 해설사 양성
진해 근대화투어 운영	•군항담방길, 근대문화역사길 등 2개 코스, 골목투어 해설사 해설을 통한 근대문화투어 프로그램 운영
진해 근대화투어 홍보 및 콘텐츠 강화 추진	•교육청, 학교, 경남관광협회 및 여행사 등 대상 홍보물 발송, SNS 홍보 등 실시 •주변시설 대표자 연담 및 민간주도형 친절·환경 캠페인 전개
관광수용태세 개선단 운영	•교통·음식·숙박·쇼핑·화장실 5개반 관련부서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선단이 현장점검 및 문제점 발굴
2018년 창원관광실태조사	•관광실태조사 및 2018 창원방문의 해 만족도 조사 추진
창원 방문의 해 홍보	•해외공항(일본 나리타, 싱가포르 창이), KTX 등 홍보
산업관광 홍보영상 제작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창원시 산업관광 해설 및 홍보 영상 제작
산업관광 해설사 양성	•기존 문화관광해설사 등 대상 산업관광 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해설사 양성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생태테마관광 해설사 양성 교육 실시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일반 숙박시설, 1~3성급 관광호텔 등 대상 리모델링 지원
관광박람회 참가	•내나라여행박람회, 한국국제관광전, 경남관광박람회, 인도네시아 박람회 Astindo Travel Fair '18, 인도네시아 케프리주 여행박람회, TPO 포럼 참가 등

자료 : 2018년 1월~6월 창원시 주요업무계획.

<표 36> 창원시 관광산업 정책현황(표계속)

사업명	내용
창원관광기념품 공모전	•창원시 소재 개인사업자, 법인 등 대상 창원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진해군항제 연계 진해중앙시장 활성화 이벤트	•군항제 기간 진해중앙시장 일원 창원관광홍보 포토존 설치 및 SNS 게재 경품 이벤트 운영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 운영	•2층 시티투어 타고 보물찾기, 버스킹 공연, 나만의 사진관 등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 구성·운영
관광산업 투자 유치 설명회	•대만 부동산개발 투자자 및 기관, 관광 관련 기관, 여행업체 등 대상으로 창원 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및 2018 창원 방문의해 등 홍보
Caledonian Sky호 창원방문 환영행사	•호주, 미국, 영국 등 방문객 120여명 대상 환영식, 마산 어시장 및 부림시장 관광, 주요 관광지 소개 등 실시 -당일코스: 입항→환영행사→합천관광→어시장관광→출항

자료 : 2018년 1월~6월 창원시 주요업무계획.

라. 시사점

정부의 주요 관광산업 정책을 관광산업 사업체 지원,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관광홍보·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인력 양성,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융합 관광산업 육성 등 5개 분야로 분류하여 <표 38>과 같이 경상남도과 창원시 관광산업 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표 37> 정부 주요 관광산업 정책 대비 경상남도, 창원시 관광산업 정책 비교·분석

구분	정부 주요 정책	경상남도	창원시
관광산업 사업체 지원	인센티브 제도 (MICE 사업지원 등)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3개 지정(전국평균 8.9개)	2개 지정(경남평균 0.2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 지정	32개 지정(전국평균 190.2개) (유치기관 20개·유치업자 12개)	13개 지정(경남평균 0.7개) (유치기관 11개·유치업자 2개)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관광벤처보육센터	-	-
	콘텐츠·관광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콘텐츠기업 육성센터(김해) 조성	-
	관광두레	4개 지역(전국평균 2.9개) (통영·남해·거창·합천)	-
관광 홍보· 마케팅	온오프라인 의료관광플랫폼 운영	-	-
	시·도국제관광전 등 박람회 운영	경남관광박람회	경남관광박람회
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인력 양성	관광품질인증제	-	-
	관광 전문인력 양성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진해 골목투어 해설사 양성 산업관광 해설사 양성 생태테마관광 해설사 양성
	수용태세 개선 (환대인식 개선사업, 관광안내 인력교육)	여행주간 환대캠페인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	관광수용태세 개선단 운영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표 37> 정부 주요 관광산업 정책 대비 경상남도, 창원시 관광산업 정책 비교·분석(표계속)

구분	정부 주요 정책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융합 관광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	VR·AR 기반 관광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지원	-
	도시재생뉴딜	6개 지역(전국평균 4.0)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남쪽빛강성여행 (부산, 거제, 통영, 남해)	-
	고급(럭셔리) 관광	-	-
	웰니스 관광 육성	웰니스 25선(산청 동의보감촌) 웰니스관광클러스터 선정 (산청, 함양, 합천, 거창, 통영, 거제, 고성)	-
	글로벌 관광지 육성	통영·거제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	-

(1) 개별여행객 중심 트렌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확대 필요

경남도와 창원시 모두 관광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의 경우 경남도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10인 이상, 창원시는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관광객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숙박비, 차량임차

료, 크루즈관광객 유치 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와 정부의 정책 기조 등을 살펴보면, 경남도와 창원시에서도 단체여행뿐만 아니라 개별여행까지 지원하는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플랫폼 조성 필요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관광산업 부문에서도 관광두레, 관광벤처보육센터, 콘텐츠·관광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관광두레 사업의 경우 경남은 통영, 남해, 거창, 합천 등 총 4개소가 선정되어 전국평균 2.9개소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경남에는 창작자들의 소통 공간 제공, 창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표 기관인 콘텐츠코리아랩이 없다. 2018년 경남도가 문재인 정부의 지역 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유치에 성공하면서 창업과 구인·구직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지만,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지역 창업 지원 거점기관으로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관광협회, 경남개발공사, 지역 대학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네트워크, 역할 분담 등 효율적 협업 체계 마련이 창업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의 관건으로 판단된다.

(3) 외국인관광객 유치 위한 기반 마련 필요

정부 정책의 기조는 중국인관광객에 편중된 방한관광시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다변화하고 있지만, 중국 관광시장은 여전히 제 1의 방한 관광시장으로 사드갈등으로 냉각기를 겪었던 방한 중국 관광시장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 중국인관광객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경남의 경우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은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이다. 경남의 여행사들은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2015년까지 지정 실적이 전무하였지만, 2016년 창원 2개소·김해 1개소 등 3개소가 지정되었다.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모객 활동이 가능해지는 만큼 창원, 김해뿐만 아니라 경남의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일부 비용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광인력 부문으로 정부에서는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등 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원시에서도 진해 골목투어 해설사, 산업관광 해설사 양성 등 지역의 특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방한 관광 타겟시장이 동남아, 중동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경남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언어권 및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 인력의 양성 교육 과정 도입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광수용태세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한국관광의 고품질화를 위해 기존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등 사업을 통합하여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 등 관광사업체를 국가에서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다. 과거 국내 관광분야의 인증제도는 공공기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체계적 홍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조하여 한국형 관광품질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한 것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객 편의 시설 및 서비스 확보 여부, 관광객 응대 전문인력 보유 여부, 안전관리 방안 수립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품질인증 사업체에는 서비스 역량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강화(소방안전 진단·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컨설팅),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 리포트 제작), 홍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¹⁶⁾.

경남도에서는 여행주간 환대캠페인,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에서도 관광수용태세 개선단 운영,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도내 관광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관광인증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쟁력 향상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4차 산업 연계 융합 관광산업 적극 육성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과 관광산업 간 융합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을 관광산업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400평 규모, 40여종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테마파크 ‘몬스터 브이아르(VR)’가 인천 송도에 개장하였으며, 제주 수목원테마파크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가상현실 콘텐츠 체험존이 각각 조성되는 등 각 지자체별 관광산업과 4차산업 융합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남에서도 거제 포로수용소 내 체험형 VR콘텐츠를 도입하여 2017년 VR 체험관을 개장하였다. 앞으로도 도내 노후화된 관광지, 경남의 문화원형 등과 4차 산업 간 융합 콘텐츠 개발 및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16)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cstkorea>)

Ⅳ. 경남 관광산업 경쟁력 분석

1. 관광경쟁력의 개요 및 평가 항목

가. 관광경쟁력의 개념 및 평가모델

관광경쟁력은 관광산업의 복합적 속성, 복잡한 시스템적 특성 등으로 그 실체를 명확하게 개념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국가, 지역 및 도시, 산업 등 평가 대상에 따라 개념, 영향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즉, 관광산업에 있어 경쟁력이란 비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한 국가 혹은 지역의 관광시장 환경 및 여건, 관광자원, 인적자원, 인프라 구조 등이 관광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 또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0; 한국관광공사, 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은 관광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 관광산업 생산요소, 관광산업 관련 및 지원산업,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을 둘러싼 국내외 관광시장의 크기와 질, 관광산업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은 한 국가 혹은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 4차적 경쟁력 원천 모델(Four Dimensional Sources of Competitiveness)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4가지 경쟁력의 원천이 관광경쟁력을 결정하는 변수로 한 국가, 도시 등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직접적 지표이자 관광구조를 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용한 평가체계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38> 관광경쟁력 결정변수

전략	내용
1차적 경쟁력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 관광부문을 움직이는 정치가, 관료 및 관광관련 행정기관으로 대표되는 정부, 관광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사, 호텔, 여행사, 식음료 사업 운영자,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종사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관광정책, 관광계획에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가 집단 등 •환경: 정치환경, 경제환경, 사회·문화환경, 기술환경, 환경문제, 국제기업환경, 통일환경 등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환경 •자원: 한 국가 혹은 지역이 부존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자연 자원 등
2차적 경쟁력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정책: 효율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 규제 정도, 투자환경조성, 공공부문 경쟁력 등 •관광계획: 관광 관련 주체자들이 관광자원을 주어진 환경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련의 계획 •관광관리: 주체자들이 관광정책·관광계획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지를 경영하는 기법 등 •관광투자: 경쟁력 있는 관광지 조성 및 인력 양성을 위해 관광부문에 투입되는 투자의 모든 가치 •관광세율 및 가격: 관광부문의 세율과 가격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0),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모델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기획특집 한국의 국가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관광정책 2007 봄 통권 제27호.

<표 38> 관광경쟁력 결정변수(표계속)

전략	내용
3차적 경쟁력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인프라: 관광교통체계, 관광안내·정보 시스템, 관광숙박시설 및 전시·국제회의 시설 등 • 수용태세: 외국어안내, 관광안내판, 국민 친절도, 금융서비스, 출입국 제도 등 관광객 욕구 및 편의 충족을 위한 공급측면의 제반 요건 • 인공자원 매력도: 자연, 역사, 문화자원의 매력도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등 인공 관광자원을 포함, 관광객에게 매력물을 제공해주는 자원 • 홍보체계: 체계적 관광홍보활동 여부, 전략적 관리를 위한 홍보모니터링 시스템 등 • 관광인력: 관광인력 양성기관, 관광종사원 수준, 서비스 질 및 관광통역안내원의 자질 등
4차적 경쟁력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수요: 관광부문의 총매출액 • 관광고용: 전체산업에서 관광고용이 차지하는 비율, 관광부문 노동생산성, 관광부문 고용의 연간실질성장을 등 • 관광성과: 외래관광객 입국자수, 방문객 증가율, 관광수지, 관광산업의 GDP 비율, 평균체재일, 재방문을 등 • 관광수출: 외래관광객 지출액, 외래관광객 1인당 소비 지출액, 전체산업 중 관광수출액 비율 등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0),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모델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기획특집 한국의 국가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관광정책 2007 봄 통권 제27호.

나. 관광경쟁력 평가 항목

본 연구에서는 경남 관광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이 제시한 3차적 경쟁력 원천을 기반으로 한국관광공사(2013), 서울연구원(2006), 경남발전연구원(2016) 등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관광경쟁력 평가 항목을 관광인프라, 관광자원, 관광인력, 관광수용태세, 관광안내 및 홍보의 5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세부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평가항목별 비교·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객관적 평가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39> 관광경쟁력 평가 지표

구분	항목		세부항목
관광 인프라	교통	지상교통	•도로교통(도로포장률, 인구천명당 도로연장,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대중교통(시외·고속버스 현황)
		항공	•공항 수, 항공운항 편수
		항만	•지정 항만 수, 크루즈 전용부두 현황
	관광사업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수
	시설자원	숙박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관광객 10만명당)
		회의·전시시설	•전문 컨벤션센터 규모, MICE 개최건수
		문화·체육시설	•문화기반 시설 수(인구 10만명당), 공공체육시설 수(인구 10만명당)
		편의시설	•공공화장실 수(인구 1만명당), 은행 수(인구 1만명당)
		의료시설	•의료기관 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수
관광 자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관광자원	지정관광지	•지정관광지 수
		관광단지	•관광단지 수
		관광특구	•관광특구 수
		축제	•문화관광축제 수, 지역축제 수
	생태·녹색관광자원		•국립공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어촌체험마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개수
	역사·문화 관광자원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도지정문화재 개수
		세계문화유산	•세계유산·기록유산 개수
		사찰	•전통사찰·템플스테이 개수
	레저(스포츠) 관광자원	스키장	•스키장 개수
		골프장	•골프장 개수
	해양 관광자원	섬 현황	•섬 개수
관광 인력	인적 자원	관광산업 종사자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관광산업 종사원 비중(관광객 10만명당, 인구 1천명당)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의 수(관광객 10만명당)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의 수(외래관광객 1만명당)
		공무원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 수(관광객 10만명당)
	관광인력 양성기관		•관광 관련 학과 재적생 수,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현황
관광 수용 태세	가격 수준	숙박요금	•1객실당 평균 숙박요금
		대중교통 요금	•시내버스 기본요금, 시내택시 기본요금
	안전	사회안전도	•강력범죄 발생건수(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인구 10만명당)
관광안내 및 홍보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소 수
	예산		•관광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0),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모델 개발, 한국관광공사(2013),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모델, 서울연구원(2006), 동아시아 도시간 국제관광경쟁력 비교 연구, 경남발전연구원(2016), 경남관광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5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WEF(2017),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7.

2. 경남 관광경쟁력 분석

1) 관광인프라

가. 교통

(1) 지상교통

지상교통 여건 중 먼저 도로교통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의 인구천명당 도로연장은 3.72km,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2.10으로 전국에서 7번째이며 전국 평균(도로연장 2.13km,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1.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도로교통 현황(2017년 말 기준)

지역	도로연장 (km)	포장률 (%)	인구천명당 도로연장(km)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지역	도로연장 (km)	포장률 (%)	인구천명당 도로연장(km)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서울	8,271	100.0	0.84	3.37	강원	10,007	87.6	6.46	1.93
부산	3,348	98.3	0.96	2.03	충북	6,891	91.4	4.32	2.00
대구	2,832	100.0	1.14	1.89	충남	7,234	90.7	3.42	1.71
인천	3,185	96.5	1.08	1.66	전북	8,510	87.2	4.59	2.17
광주	1,850	100.0	1.26	2.15	전남	10,590	89.5	5.58	2.19
대전	2,136	100.0	1.42	2.34	경북	13,336	87.5	4.95	1.84
울산	2,117	99.0	1.82	1.87	경남	12,567	90.1	3.72	2.10
세종	402	100.0	1.44	1.20	제주	3,211	99.0	4.89	2.95
경기	13,604	98.1	1.06	1.16	전체	110,091	92.8	2.13	1.51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2017), 2017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다음으로 시외·고속버스 현황을 살펴보면, 9개 광역도의 시외·고속버스 8,580대 중 경남의 시외·고속버스는 1,628대로 1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광역도 평균 953.3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시외·고속버스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대)

구분	보유대수(사용+예비차)				구분	보유대수(사용+예비차)			
	일반	직행	고속	합계		일반	직행	고속	합계
경기	22	1,930	79	2,031	경북	8	889	126	1,023
강원	-	708	-	708	경남	125	1,385	118	1,628
충북	-	442	-	442	제주	301	-	-	301
충남	-	753	111	864	합계	456	6,969	1,155	8,580
전북	-	440	34	474	평균	50.7	774.3	128.3	953.3
전남	-	422	687	1,10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 항공

항공 운항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5개 공항 중 경남도는 사천공항과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나 인접한 김해공항이 있으며, 전국 운항편수 850,214편 중 경남의 항공편수는 109,232편으로 12.8%의 비중을 차지, 평균 56,681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국 항공여객의 경우, 전국 143,331,106명 중 경남의 항공여객은 16,581,802명으로 11.5%의 비중을 차지, 전국 평균 9,555,407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2017년 항공 운항 현황

(단위 : 편·명·%)

구분	운항편수(비중)			여객(비중)		
	국내선	국제선	합계	국내선	국제선	합계
김포	125,136(31.8)	20,371(4.5)	145,507(17.1)	21,068,467(32.0)	4,032,680(5.2)	25,101,147(17.5)
대구	12,922(3.3)	10,269(2.2)	23,191(2.7)	2,056,355(3.1)	1,503,769(1.9)	3,560,124(2.5)
인천	5,133(1.3)	355,162(77.7)	360,295(42.4)	561,460(0.9)	61,520,572(79.4)	62,082,032(43.3)
광주	12,678(3.2)	-	12,678(1.5)	1,946,605(3.0)	-	1,946,605(1.4)
울산	5,337(1.4)	-	5,337(0.6)	571,429(0.9)	-	571,429(0.4)
원주	705(0.2)	-	705(0.1)	81,560(0.1)	-	81,560(0.1)
양양	-	179(0.0)	179(0.0)	-	15,780(0.0)	15,780(0.0)
청주	14,246(3.6)	1,579 (0.3)	15,825(1.9)	2,385,611(3.6)	185,940(0.2)	2,571,551(1.8)
군산	1,420(0.4)	-	1,420(0.2)	225,797(0.3)	-	225,797(0.2)
무안	860(0.2)	1,286(0.3)	2,146(0.3)	141,067(0.2)	156,949(0.2)	298,016(0.2)
여수	5,046(1.3)	-	5,046(0.6)	592,509(0.9)	-	592,509(0.4)
포항	1,371(0.3)	2(0.0)	1,373(0.2)	98,163(0.1)	228(0.0)	98,391(0.1)
경남	김해	48,843(12.4)	58,520(12.8)	107,363(12.6)	7,590,455(11.5)	8,813,086(11.4)
	사천	1,869(0.5)	-	1,869(0.2)	178,261(0.3)	-
	합계	50,712(12.9)	58,520(12.8)	109,232(12.8)	7,768,716(11.8)	8,813,086(11.4)
제주	157,545(40.1)	9,735(2.1)	167,280(19.7)	28,327,411(43.0)	1,276,952(1.6)	29,604,363(20.7)
합계	393,111	457,103	850,214	65,825,150	77,505,956	143,331,106
평균	26,207	30,474	56,681	4,388,343	5,167,064	9,555,407

자료 : 한국공항공사(www.airport.co.kr).

(3) 항만

항만 현황을 살펴보면, 항만법상 지정항만 60개 중 경남의 항만 수는 9개로 전국 평균 3.5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지정항만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개·%)

구분	경남(비중)	전국	평균
무역항	8(25.8)	31	1.8
연안항	1(3.4)	29	1.7
합계	9(15.0)	60	3.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내 크루즈 전용부두는 부산 북항(22만톤급), 제주항(15만톤급), 서귀포 강정항(15만톤급), 속초항(10만톤급), 여수신항(15만톤급) 등 5개소가 있으며, 2019년 인천남항에 22만5천톤급의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크루즈 전용부두가 완공될 예정이다.

경남도내에는 현재 크루즈 전용부두가 없지만, 2007~2013년까지 마산항 4회, 통영항 2회, 삼천포항 1회 등 7회, 약 3,096명의 크루즈 유치실적이 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의 항들이 화물처리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 화물처리로 인해 크루즈선 입항이 쉽지 않고, 대규모 크루즈선 입항을 위한 전용부두 및 크루즈터미널 부재 등으로 크루즈 선의 정기적 유치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경남도내 주요 항만현황

구분	부두명	수심	부두길이	적정선박	현황	이용 가능성
진해항	2부두	11m	635m	5~6톤급	•화물처리 기능과 상충, 전용터미널 부재	일시이용 가능
통영항	다목적부두	8m	150m	5천톤급	•인근 통영연안여객터미널 임시 이용방안 마련 필요(3층, 연건평 4,686㎡)	일시이용 가능
삼천포항	삼천포신항	11m	240m	2만톤급	•화물처리 기능과 상충 •삼천포~제주 여객터미널(현재 미운영)	일시이용 가능
장승포항		4m	100m	2천톤급	•전용터미널 구비 •소형선박만 접안 가능, 수심 준설 필요	이용 가능 대형선 입항 곤란
마산항	2부두	6m	540m	1만톤급	•국동크루즈 터미널 구비 •예선, 도선선, 소방정 등 공공선 이용 중 •전면 수심문제로 대형크루즈 입항 곤란	일시이용 가능 대형선 입항 곤란
	3부두	11m	420m	2만톤급	•번잡한 화물 처리로 마산해양수안청 검토 후 이용가능	일시이용 가능
가포신항		12m	980m	3만톤급	-	일시이용 가능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2016), 경남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자료를 토대로 업데이트.

나. 관광사업체

관광진흥법상의 전국 관광사업체 34,126개 중 경남의 관광사업체는 1,853개로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관광사업체 규모는 17개 시·도 중 5번째이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관광사업체의 45.0%가 집중되어 있어 전국 평균 2007.4개 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세부적으로는 관광객이용시설업(265개), 유원시설업(209개), 관광편의시설업(260개)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업(996개), 관광숙박업(107개), 회의업(16개) 등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지역별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 개·%)

구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합계(비중)
서울	8,020	412	1,059	555	3	223	600	10,872(31.9)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 (2018년 1/4분기 기준).

<표 45> 지역별 관광사업체 현황(표계속)

(단위 : 개·%)

구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합계(비중)
부산	1,487	148	154	64	2	168	165	2,188(6.4)
대구	944	25	44	35	1	75	139	1,263(3.7)
인천	577	134	134	15	1	117	144	1,122(3.3)
광주	630	15	27	21	0	41	56	790(2.3)
대전	567	19	12	33	0	79	91	801(2.3)
울산	322	16	21	8	0	74	92	533(1.6)
세종	57	0	3	3	0	13	5	81(0.2)
경기	2,451	161	566	45	0	545	669	4,437(13.0)
강원	533	137	485	19	1	102	158	1,435(4.2)
충북	502	33	152	4	0	78	59	828(2.4)
충남	528	41	179	2	0	98	143	991(2.9)
전북	892	48	255	7	0	73	364	1,639(4.8)
전남	733	204	154	3	0	101	405	1,600(4.7)
경북	781	81	266	14	0	128	468	1,738(5.1)
경남	996	107	265	16	0	209	260	1,853(5.4)
제주	1,095	411	101	25	8	60	255	1,955(5.7)
합계	21,115	1,992	3,877	869	16	2,184	4,073	34,126
평균	1242.1	117.2	228.1	51.1	0.9	128.5	239.6	2007.4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 (2018년 1/4분기 기준).

다. 시설자원

(1) 숙박시설

전국 관광숙박업 객실 수 173,813실 중 경남의 관광숙박업 객실 수는 6,630실이며, 관광객 10만명당 관광숙박업 객실 수를 산정해보면, 전국 169.1실, 경남 77.3실로 전국 대비 경남의 관광숙박업 객실 수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관광객 10만명당 관광숙박업 객실 수(2016년 기준)

(단위 : 실)

구분	전국	경남
관광숙박업 객실 수	173,813	6,630
관광객 10만명당 관광숙박업 객실 수	169.1	77.3

자료 : 한국호텔업협회,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현황(2016. 12.31.기준).

(2) 회의·전시시설

다음으로 회의·전시시설을 살펴보면, 경남의 전문 컨벤션센터인 CECO의 전시·회의 시설 면적은 13,119㎡로 전국 14개 전문 컨벤션센터 중 6번째 규모이며, 전국 평균 25,235.5㎡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회의·전시시설 현황

(단위 : ㎡)

지역	컨벤션센터	시설규모		
		전시시설 면적	회의시설 면적	합계
서울	COEX	36,007	11,568	47,575
	SETEC	7,948	-	7,948
	aT Center	7,422	2,448	9,870
부산	BEXCO	46,380	8,883	55,263
대구	EXCO	22,159	5,073	27,232
인천	송도컨벤시아	8,416	4,020	12,436
광주	KDJ Center(김대중컨벤션센터)	12,027	7,066	19,093
대전	DCC(대전컨벤션센터)	2,520	4,862	7,382
경기	KINTEX	108,566	15,762	124,328
전북	GSCO(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3,000	2,749	5,749
경북	구미	GUMICO	953	4,355
	경주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5,137	7,410
경남	CECO(창원컨벤션센터)	9,375	3,744	13,119
제주	ICC Jeju(제주국제컨벤션센터)	2,395	9,142	11,537
평균		19,420.7	5,814.8	25,235.5

자료 : 한국전시산업진흥회(www.akei.or.kr)

전국 MICE 개최건수 244,558건 중 경남의 MICE 개최건수는 7,724건으로 3.2%의 비중을 차지하여 전국에서 10번째이며, 전국 평균 개최건수 15,284.9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2016년 MICE 개최건수(2016년 기준)

(단위 : 건·%)

구분	Meeting	Convention	Exhibition	합계(비중)
서울	83,674	1,919	359	85,952(35.1)
부산	23,211	725	116	24,052(9.8)
대구	14,145	133	62	14,340(5.9)

주 : Incentive는 제외.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7), 2016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보고서.

<표 48> 2016년 MICE 개최건수(2016년 기준)(표계속)

(단위 : 건·%)

구분	Meeting	Convention	Exhibition	합계(비중)
인천	5,481	99	19	5,599(2.3)
광주	5,730	149	62	5,941(2.4)
대전	12,907	205	28	13,140(5.4)
울산	1,160	6	-	1,166(0.5)
경기	23,648	396	124	24,168(9.9)
강원	14,544	835	-	15,379(6.3)
충북	5,380	74	-	5,454(2.2)
충남	9,411	115	-	9,526(3.9)
전북	5,611	166	3	5,780(2.4)
전남	6,777	372	-	7,149(2.9)
경북	11,590	235	41	11,866(4.9)
경남	7,527	154	43	7,724(3.2)
제주	7,085	225	12	7,322(3.0)
합계	237,881	5,808	869	244,558
평균	14,867.6	363.0	54.3	15,284.9

주 : Incentive는 제외.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7), 2016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보고서.

(3) 문화·체육시설

전국 문화기반시설 2,657개소 중 경남의 문화기반시설은 193개소로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5.7개소로 전국 평균 5.1개소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문화기반시설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전국	경남(비중)
문화기반시설 수	2,657	193(7.3)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5.1	5.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전국 공공체육시설 24,303개소 중 경남의 공공체육시설은 2,170개소로 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공공체육시설 수는 64.3개소로 전국 평균 47.0개소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공공체육시설 현황(2016년 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전국	경남(비중)
공공체육시설 수	24,303	2,170(8.9)
인구 10만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47.0	64.3

자료 : e-나라지표(www.index.go.kr).

(4) 편의시설

전국 공공화장실 52,718개소 중 경남의 공공화장실은 4,906개소로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만명당 공공화장실 수는 14.5개소로 전국 평균 10.2개소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공공화장실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개소 · %)

구 분	전국	경남(비중)
공공화장실 수	52,718	4,906(9.3)
인구 1만명당 공공화장실 수	10.2	14.5

자료 : 행정안전부, 전국공공화장실 현황(2016년 12월 기준).

전국 금융기관(은행) 6,788개소 중 경남의 금융기관(은행)은 379개소로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만명당 금융기관(은행) 수는 11.2개소로 전국 평균 13.1개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금융기관(은행) 현황(2017년 기준)

(단위 : 개소 · %)

구 분	전국	경남(비중)
금융기관(은행) 수	6,788	379(5.6)
인구 1만명당 금융기관(은행) 수	13.1	11.2

자료 : 은행연합회, 2017년 12월말 기준 은행 점포 현황.

(5) 의료시설

전국 의료기관 3,608개소 중 경남의 의료기관은 317개소로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212.2개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수는 전국 1,764개소 중 20개소로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03.8개소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의료시설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개소 · %)

구 분	전국	경남(비중)	평균
의료기관 수	3,608	317(8.8)	212.2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수	1,764	20(1.1)	103.8

자료 :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위치정보시스템(www.hospitalmaps.or.kr).

2) 관광자원

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관광자원

(1)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전국의 지정관광지 226개소 중 경남의 지정관광지는 21개소로 전국 평균 13.3개소보다 많았으며, 관광단지는 창원구산해양관광단지, 웅동관광단지 등 2개소가 지정되어 전국평균 2.6개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특구의 경우, 부곡온천 관광특구, 미륵도 관광특구 등 2개소가 지정, 전국 평균 1.8개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 현황

(단위 : 개 · %)

구 분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개소	규모(k㎡)	개소	규모(k㎡)
전체	226	44	148.126	31	2,634.47
경남(비율)	21(9.3)	2(4.5)	4.943	2(6.5)	37.72
평균	13.3	2.6	-	1.8	-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2) 축제

전국 문화관광축제 81개 중 경남의 문화관광축제는 6개로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4.8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 또한 전국 893개 중 58개로 평균 52.5개보다 많았다.

<표 55> 축제 현황

(단위 : 개 · %)

구 분	전국	경남(비중)	평균
문화관광축제	81	6(7.3)	4.8
지역축제	893	58(6.5)	52.5

주 : 문화관광육성축제 포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체부,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2017-12-28일자).

나. 생태·녹색관광자원

경남의 생태·녹색 관광자원은 자연공원 16개(20.5%), 관광농원 111개(17.4%), 농촌체험휴양마을 105개(11.0%), 어촌체험마을 22개(20.8%), 삼림욕장 20개(10.3%)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자연휴양림은 15개(5.2%)로 전국 평균 16.9개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생태·녹색관광자원 현황

(단위 : 개·%)

구분	전국	경남(비중)	평균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78	16(20.5)	4.6
관광농원	639	111(17.4)	37.6
농촌체험휴양마을	953	105(11.0)	56.1
어촌체험마을	106	22(20.8)	6.2
자연휴양림	287	15(5.2)	16.9
산림욕장	194	20(10.3)	11.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다. 역사·문화관광자원

(1) 지정문화재

전국 지정문화재 10,654개 중 경남의 지정문화재는 1,216개로 11.4%의 비중 차지하여 전국 평균 626.7개 대비 월등히 많았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 명승, 무형문화재는 전국에서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지정문화재 현황

(단위 : 개·%)

구분		전국	경남(비중)	평균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331	11(3.3)	19.5
	보물	2,106	164(7.8)	123.9
	사적	500	51(10.2)	29.4
	명승	110	12(10.9)	6.5
	천연기념물	457	44(9.6)	26.9
	국가무형문화재	138	14(10.1)	8.1
	국가민속문화재	297	12(4.0)	17.5
등록문화재		724	43(5.9)	42.6
소계		3,939	308(7.8)	231.7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3,243	550(17.0)	190.8
	시·도무형문화재	576	39(6.8)	33.9
	시·도기념물	1,703	255(15.0)	100.2
	시·도민속문화재	469	21(4.5)	27.6
소계		5,991	865(14.4)	352.4
합계		10,654	1,216(11.4)	626.7

자료 : 문화재청(www.cha.go.kr).

(2) 세계문화유산

전국 세계유산 12개, 세계기록유산 16개 중 경남의 세계유산은 해인사 장경판전, 세계기록유산은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이 각각 지정되어 있어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세계문화유산 현황

(단위 : 개 · %)

구 분	전국	경남(비중)	평균
세계유산	12	1(8.3)	0.7
세계기록유산	16	1(6.3)	0.9

자료 : 유네스코와 유산(heritage.unesco.or.kr).

(3) 사찰

경남에는 한국의 3대 사찰 중 2개소(통도사, 해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 전통사찰 966개소 중 103개소(10.7%)를 보유, 전국 평균 56.8개소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템플스테이 또한 전국 136개소 중 11개소를 보유, 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8.0개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전통사찰 및 템플스테이 현황

(단위 : 개소 · %)

구 분	전국	경남(비중)	평균
전통사찰	966	103(10.7)	56.8
템플스테이	136	11(8.1)	8.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현황(2017. 12. 31 기준),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4) 레저·스포츠 관광자원

전국 스키장 19개소 중 경남의 스키장은 에텐벨리리조트 1개소로 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1개소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의 경우, 전국 555개소 중 46개소를 보유, 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32.6개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스키장·골프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전국	경남(비중)	평균
스키장	19	1(5.3)	1.1
골프장	555	46(8.3)	32.6

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전국 골프장 현황(2016.1.1 기준).

(5) 해양 관광자원

전국의 섬 3,677개 중 경남의 섬은 유인도 709개, 무인도 85개 등 총 794개소로 전국 평균 216.2개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섬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국	경남(비중)	평균
유인도	3,191	709(22.2)	187.7
무인도	486	85(17.5)	28.6
합계	3,677	794(21.6)	216.2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6), 도서(섬)지역의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 1218호, 통계청(kostat.go.kr)

3) 관광인력

가. 인적자원

(1) 관광종사자

전국 관광종사자 3,675,038명 중 경남의 관광종사자는 227,532명으로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216,178.7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광객 10만 명당 관광종사자는 전국 9,352.9명 대비 2,399.5명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천명당 관광종사자는 전국 71.1명 대비 67.4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62> 관광종사자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전국	경남(비중)	평균
관광종사자	3,675,038	227,532(6.2)	216,178.7
관광객 10만명당 관광종사자	9,352.9	2,399.5	-
인구 1천명당 관광종사자	71.1	67.4	-

주 :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송업+숙박 및 음식점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합산하여 산출.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 문화관광해설사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3,050명 중 경남의 문화관광해설사는 193명으로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국 평균 179.4명보다 많았던 반면, 관광객 10만명당 문화관광해설사는 전국 7.8명 대비 경남은 5.7명으로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전국	경남(비중)	평균
문화관광해설사	3,050	193(6.3)	179.4
관광객 10만명당 문화관광해설사	7.8	5.7	-

자료 : 경남도 내부자료.

(3)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

경남의 관광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남의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은 전국 462명 중 21명으로 4.5%의 비중을 차지하여 전국 평균 27.2명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10만명당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 또한 전국 1.2명 대비 경남은 0.2명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명 · %)

구 분	전국	경남(비중)	평균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	462	21(4.5)	27.2
관광객 10만명당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	1.2	0.2	-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나. 관광인력 양성기관

(1) 관광 관련 학과 재적생 수

전국의 관광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및 재적생수는 113개교 · 43,191명이었으며, 경남의 관광 관련 학과 개설 학교 및 재적생수는 9개교 · 3,086명(7.1%)로 전국 평균 2,190.8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관광 관련 학과 재적생 수(2016년 기준)

(단위 : 개교 · 명 · %)

구 분	전국		경남(비중)		재적생수 평균
	학교수	재적생수	학교수	재적생수	
관광 관련 학과	113	43,191	9(8.0)	3,086(7.1)	2,190.8

주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대학) 제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년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2) 관광인력 양성기관 현황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인증 기관 25개소 중 경남의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인증 기관은 경남도립 남해대학교,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2개소(8.0%)로 전국 평균 1.5개소보다 많았으며,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 또한 전국 57개소 중 5개소(8.8%)로 전국 평균 3.4개소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관광인력 양성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

구 분	전국	경남(비중)	평균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인증 기관	25	2(8.0)	1.5
국외여행인솔자 양성기관	57	5(8.8)	3.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국외여행인솔자 인력관리시스템(www.tchrm.or.kr).

4) 관광수용태세

가. 가격수준

(1) 숙박요금

호텔업 객실 평균요금은 전국 115,848원 대비 경남 114,655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주변 경쟁지역 중에서는 부산, 전남보다는 낮았고, 울산, 경북 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객실이용률은 전국 64.2%, 경남 46.7%였으며, 주변 경쟁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숙박요금 및 객실이용률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원 · %)

구 분	전국	부산	울산	전남	경북	경남
객실 평균요금	115,848	127,550	111,234	121,484	99,699	114,655
객실이용률	64.2	60.4	54.5	48.3	48.9	46.7

주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2호 가목에 의한 호텔업만 포함.

자료 : 한국호텔업협회(2017), 2016 호텔업운영현황.

(2) 대중교통 요금

경남의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39원으로 전국 평균 1,290.8원보다 낮았으며, 시내택시 기본요금은 전국 2,947.9원 대비 3,406원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대중교통 요금 현황(2018년 5월 기준)

(단위 : 원)

구 분	전국	경남
시내버스 기본요금(평균)	1,290.8	1,239
시내택시 기본요금(평균)	2,947.9	3,406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공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공요금 조사결과(2018.5월).

나. 안전

전국 강력범죄 536,694건 중 경남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31,109건으로 전국 평균 31,570건 보다 낮았으며,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또한 전국 1,038.2건 대비 922.1건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강력범죄 발생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건)

구 분	전국	경남	평균
강력범죄 발생건수	536,694	31,109	31,570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1,038.2	922.1	-

주 : 강력범죄는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포함.

자료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경남지방경찰청(gnpolice.go.kr).

전국 교통사고 220,917건 중 경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522건으로 전국 평균 12,995.1건 보다 낮았으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전국 434.9건 대비 379.8건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0> 교통사고 발생 현황(2016년 기준)

(단위 : 건)

구 분	전국	경남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	220,917	12,522	12,995.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434.9	379.8	-

자료 : 경찰청, 2017 교통사고통계.

5) 관광안내 및 홍보

가. 관광안내소

전국 관광안내소 293개 중 경남의 관광안내소는 41개소로 전국 평균 18.3개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관광안내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전국	경남	평균
관광안내소	293	41	18.3

주 : 세종시 제외.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전국관광안내소 목록, 경상남도(2017), 제6차경남권관광개발계획.

나. 관광 홍보·마케팅

14개 광역 시·도별 관광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은 평균 41억원 정도로 경남의 관광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 38.9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2> 관광 홍보·마케팅 예산(2018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경남	평균
관광 홍보·마케팅 예산	3,891	4,109

주 : 관광 관련 박람회·총회 등 개최 및 참가, 관광 홍보 홈페이지 운영, 관광 홍보책자 제작, 관광안내소 운영 등 홍보·마케팅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개략 산정,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제외.

자료 : 시·도별 2018년 예산서.

3. 종합 및 시사점

구분	항목		세부항목	전국 평균	경남	비고
관광 인프라	교통	지상교통	도로교통(인구천명당 도로연장)	2.13km	3.72km	★
			대중교통(시외·고속버스 현황)	953.3대	1,628대	★
		항공	항공운항 편수	56,681편	109,232편	★
			항공여객	9,555,407명	16,581,802명	★
		항만	지정항만 수	3.5개	9개	★
			크루즈 전용부두	5개소	-	△
	관광사업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수	2,007.4개	1,853개	△
	시설자원	숙박시설	관광객 10만명당 숙박시설 객실 수	169.1실	77.3실	△
			회의·전시시설	전문 컨벤션센터 규모	25,235.5㎡	13,119㎡
			MICE 개최건수	15,284.9건	7,724건	△
		문화·체육시설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5.1개소	5.7개소	★
			인구 10만명당 공공체육시설 수	47.0개소	64.3개소	★
		편의시설	인구 1만명당 공공화장실 수	10.2개소	14.5개소	★
			인구 1만명당 은행 수	1.3개소	1.1개소	△
		의료시설	의료기관 수	212.2개소	317개소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수	103.8개소		20개소	△		
관광 자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관광자원	관광(단)지	관광지 수	13.3개	21개	★
			관광단지 수	2.6개	2개	△
		관광특구	관광특구 수	1.8개	2개	★
			축제	문화관광축제 수	4.8개	6개
	지역축제 수	52.5개		58개	★	
	생태·녹색관광자원		자연공원 개수	4.6개	16개	★
			관광농원	37.6개	111개	★
			농촌체험휴양마을 개수	56.1개	105개	★
			어촌체험마을 개수	6.2개	22개	★
			자연휴양림 개수	16.9개	15개	△
			산림욕장 개수	11.4개	20개	★
	역사·문화 관광자원	문화재	지정문화재 개수	626.7개	1,216개	★
			세계문화유산	세계유산 개수	0.7개	1개
			기록유산 개수	0.9개	1개	★
		사찰	전통사찰 개수	56.8개소	103개소	★
	템플스테이 개수		8.0개소	11개소	★	
	레저(스포츠) 관광자원	스키장	스키장 개수	1.1개소	1개소	△
골프장		골프장 개수	32.6개소	46개소	★	
해양 관광자원	섬 현황	섬 개수	216.2개	794개	★	
관광 인력	인적 자원	관광산업 종사자	관광종사자 수	216,178.7명	227,532명	★
			관광객 10만명당 관광종사자 수	9,352.9명	2,399.5명	△
			인구 1천명당 관광종사자 수	71.1명	67.4명	△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수	179.4명	193명	★
			관광객 10만명당 문화관광해설사 수	7.8명	5.7명	△

주 : 평균 이상은 ★(단, 숙박요금, 대중교통 요금, 사회안전도의 경우 낮을수록 경쟁력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균 이하일 경우 ★로 표기), 평균 이하는 △로 표기(단, 숙박요금, 대중교통 요금, 사회안전도의 경우 높을수록 경쟁력이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균 이상일 경우 △로 표기).

구분	항목		세부항목	전국 평균	경남	비고
관광 인력	인적 자원	공무원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 수	27.2명	21명	△
			관광객 10만명당 관광 관련 부서 공무원 수	1.2명	0.2명	△
	관광인력 양성기관		관광 관련 학과 재적생 수	2,190.8명	3,086명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기관	1.5개소	2개소	★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현황	3.4개소	5개소	★
관광 수용 태세	가격 수준	숙박요금	1객실당 평균 숙박요금	115,848원	114,655원	★
		대중교통 요금	시내버스 기본요금	1,290.8원	1,239원	★
	시내택시 기본요금		2,947.9원	3,406원	△	
	안전	사회안전도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1,038.2건	922.1건	★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434.9건	379.8건	★
관광안내 및 홍보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소 수	18.3개소	41개소	★
	예산		관광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	4,109백만원	3,891백만원	△

주 : 평균 이상은 ★(단, 숙박요금, 대중교통 요금, 사회안전도의 경우 낮을수록 경쟁력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균 이하일 경우 ★로 표기), 평균 이하는 △로 표기(단, 숙박요금, 대중교통 요금, 사회안전도의 경우 높을수록 경쟁력이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균 이상일 경우 △로 표기).

가. 관광사업체 지원대책 수립 필요

경남의 여행업체는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2018년까지 연평균 -4.8%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영세업체들의 경우, 유통망이 취약하고, 마케팅 여력 등이 부족하여 수도권의 대형 사업체들과 경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들은 중·소규모의 관광 사업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충북도에서는 중국전담여행사 육성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관광숙박업을 살펴보면, 경남의 관광숙박업체 수, 관광객 10만명당 관광숙박업 객실수는 전국 평균보다 적었으며, 호텔업 객실 평균요금은 114,655원으로 전국 평균 및 부산, 전남 등 인근지역보다 낮았지만, 객실이용률은 46.7%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전담여행사 육성 및 판로개척 지원, 숙박업소 품질제고 및 수용태세 개선 등의 제도 도입·운영을 통해 도내 관광사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MICE 체계적 육성 전략 마련 필요

MICE산업은 다보스 포럼의 사례와 같이 도시 브랜드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로 큰 산업으로(경남발전연구원, 2016), 전국 각 지자체별로 MICE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내 전문 컨벤션센터는 14개소

이지만 수원 컨벤션센터, 울산 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 중에 있어 앞으로 향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의 전문컨벤션 센터로는 CECO가 있으며, 2017년 증축 공사를 통해 현재는 전국 6번째 규모의 전시·회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남의 MICE 개최건수는 전국 10번째로 2012년 4,742건 대비 2016년 7,724건으로 62.9% 증가하였으며, 2012년~2016년까지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는 창원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성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항공산업 등의 발전이 기대되는 서부경남 MICE 산업 육성 등 경남 MICE산업 전반적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다. 홍보·마케팅 정책 강화

경남의 관광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은 약 38.9억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 41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남도에서는 실크로드 한중대학생 SNS기자단 운영, 국내외 관광홍보설명회 개최 및 관광박람회 참가와 경남도는 김해공항 국제선 라이트박스 광고, 수도권 영화관 스크린 경남관광 홍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관광·홍보마케팅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개별여행객 중심 등 관광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고, 경남 관광 수요 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관광·홍보마케팅 정책 다변화, 신규 유치 시장 발굴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종합분석



1. 강점

가. 지역 특화 관광산업 보유

경남에는 서북부권(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한방 향노화 웰니스, 남해안권(통영, 거제, 고성, 남해 등)의 해양 향노화 웰니스 등 다양한 힐링·웰니스 관광자원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산청의 동의보감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웰니스관광 25선에 선정된 바 있으며, 거창은 향노화 힐링 특구로 지정받는 등 경남 힐링·웰니스 자원은 대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2016년 경남도·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 공동출자하여 경남의 향노화·웰니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인 경남향노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인 경남향방약초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웰니스관광클러스터 구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비 4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하여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힐링휴양관광 집중 육성이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으로 선정되는 등 향후 힐링·웰니스 관광산업은 경남의 특화 관광산업으로써 성장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나. 관광자원 및 산업인프라 다수 보유

경남은 가야, 유교, 종교 등 특색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 섬 등

해양 관광자원, 지리산, 가야산 등 산악 관광자원, 최치원, 이순신 등 인물자원과 진시황 서불과차 등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인문자원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천년의 역사를 가진 가야, 김중직·정여창·조식·곽재우와 50인의 의병장 등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팔만대장경의 호국 종교 등 경남의 관광자원들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수로 봐도 해인사장경판전,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등의 유네스코 지정 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 명승, 무형문화재는 전국의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야유적 665개소 중 544개소(82%)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는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경남은 삼성, LG, 효성, GS 등 국내 기업가 정신을 대표하는 1세대 기업인이 다수 탄생한 지역으로 지난 40여년간 국내 고도성장기의 중심에서 산업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의 큰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경남발전연구원, 2017; 경남발전연구원, 2018). 경남은 2016년 기준 국내 GRDP의 6.6%를 차지, 전국 네 번째의 경제 규모로 향후 민선 7기의 경제중심 정책 추진에 따라 항공, 기계, 향노화 등 경남산업의 재도약이 예상되는 바, 이를 활용한 산업시찰 관광상품 등의 운영이 가능하다.

다. 대규모 핵심 관광사업 지속 추진

2017년 개장한 아시아 최장 길이인 3.18km의 하동 금오산 짚와이어, 2018년 개통한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양산 에텐벨리 루지 등 신규 관광시설들이 호평을 받고 있고(경남발전연구원, 2018), 창원 로봇랜드,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 등 도내 시·군별로 다양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6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7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11개 사업 완료, 4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등 대규모 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2018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거제 벨버디어, 2019년 토요코인호텔 창원점, 2021년 남해 대명리조트가 각각 완공 예정에 있는 등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향후 관광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 등 남해안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남해안권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현재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의 지역공약으로 채택되었고, 2016년~2025년까지 10여년에 걸쳐 5조 3,246억원이 투입되어 서울에서 대전~김천~함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이 민선 7기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부경남 KTX가 개통된다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의 접근이 가능해짐으로써 향후 남해안 지역이 동북아 해양 관광 중심지로 부상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약점

가. 타지역 대비 관광산업 규모의 영세성

경남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는 1,853개로 전국에서 5번째,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사업체의 수도권 편중 현상으로 인해 경남의 관광사업체는 전국 평균보다 적고, 세부업종별로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회의업의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전국 관광사업체 수는 2014년~2018년까지 연평균 7.4%의 추세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남은 0.9%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원, 거제, 진주 등 시 지역에 관광사업체의 80.9%가 집중되어 있는 등 시 지역 편중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의 관광사업체들이 영세하고, 수도권 대형 관광사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부 관광정책 및 트렌드 적극 대응 필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 관광 분야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벤처보육센터, 콘텐츠·관광 일자리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등 전문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남도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광 트렌드, 정부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역특화 관광 전문인력 양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은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광 분야에서도 4차 산업 융합 콘텐츠가 활발히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의 기술과 관광산업의 융합을 통한 실감형 관광 콘텐츠 구축이 하나의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거제 포로수용소 내 VR 체험관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의 관광 분야 적용이 보편화되면서 관광지, 축제 등의 수요분석, 방문객 소비패턴, 만족도 등의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도입은 아직은 초기단계로 활성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 글로벌 관광지(관광시설) 육성 필요

글로벌 테마파크, 쇼핑 및 공연시설 등 국제 규모의 관광시설 부재는 중장기적으로 경남이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2016년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도내 위치한 대표적 거점 쇼핑시설로는 대동면세점, 김해롯데아울렛 등이 있는데, 해당 시설에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지 않아 글로벌 쇼핑 관광객 유치에 있어 부산 등 타 지역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도내 거점 쇼핑시설들이 창원, 김해 등 동부 경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서부경남 지역에도 거점 쇼핑시설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획

가. 정부공모 사업 다수 선정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가능

경남도는 2016년 거제·통영의 “사랑의 설렘, 한류 웨딩여행&남해안 낭만여행”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사업, 산청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문화관광축제(4개) 등 총 14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4억 3천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17년에는 창원 산업관광 육성, 하동 문화테즈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 통영·거제·남해 테마여행 10선, 문화관광축제(3개) 등 총 26억 6천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2018년에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소(하동·거제·밀양), 중앙정부 2개소(사천·김해), 공공기관 제안방식 1개소(통영) 등 총 6개소가 선정, 국비 등 재정보조 1,800억원을 포함하여 부처 연계사업, 공공기관투자, 민간 투자 등 총 1조 3,0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18).

<표 73> 경남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현황

사업유형	대상지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중심시가지형	사천	바다마실, 삼천포애(愛) 빠지다	•해양음식 도서관 ‘지혜의 바다’, 공공커뮤니티 문화거점 조성, 복합교류공간 ‘7004’ 조성 등
	김해	포용과 화합의 무게	•무계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장유도가 문화마을 조성 등
경제기반형	통영	문화·관광·해양산업 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통영국제미술관 건립, 오션아트 플랫폼 조성, 도크 메모리얼 조선해양박물관 건립 등
우리동네살리기	하동	넉넉하고 건강한 하동라이프	•광평역사문화 간이역 조성, 하동학숙 배움터 조성 등
주거지지원형	거제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	•융복합 커뮤니티 거점사업, 신부시장 아트마켓팅 사업 등
일반근린형	밀양	밀양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	•해천루 주상문화복합시설 조성,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조성 등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2018), 문화관광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최초로 추진된 웰니스관광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8억원을 투입,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향노화 웰니스 사업은 경남의 특화 관광산업으로써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경남도와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유치에 성공, 2019년까지 김해시 일원에 214억원을 투입하여 경상남도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콘텐츠코리아랩의 부재로 청년 창업, 교류 거점이 부족했던 경남의 콘텐츠·관광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지역균형 발전정책으로 지역관광 발전 기회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세 번째 전략으로 “함께하는 지역관광 만들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핵심과제로 지역관광 매력 및 서비스 고도화, 지역관광 개발 정책수단의 선진화, 지역관광 개발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지역관광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지방 관광 육성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경남 지역공약에는 경남 남해안 지역과 특화산업인 향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남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경남 서부권을 향노화산업 연계 6차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등이 포함되었다.

2018년 7월 11일 개최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여행수요 증가 효과의 국내 지역 확산, 지역관광 발전 등을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은 4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관광거점 조성,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지역주도 관광정책 추진, 지역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통영, 여수, 목포 등 항만, 공항, KTX역 보유지역의 글로벌 관광도시 지정 및 육성, 산청·함양·거창·합천의 한방 향노화 웰니스, 통영·거제·고성의 해양 웰니스 등 고부가 관광 지역 클러스터 조성, 남해안 관광루트 조성, 하동 전통차농업 등 세계·국가 중요농업유산 활용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등 다수의 사업들이 포함되었고, 이는 경남 관광산업 활성화 및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남도 차원에서 정부의 지역 관광산업 육성 의지를 효율적으로 반영한 정책 발굴·수립을 통해 이를 경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74>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전략	세부 추진과제	
국제적 지역관광 거점 조성 통한 관광 목적지 다양화	•관광전략 거점도시 육성 •올림픽 겨울·스포츠 관광거점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거점 •고부가관광 지역 클러스터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통한 지역관광 매력도 상승	•섬·해안 관광자원 개발 •역사·문화 테마 관광상품 개발	•농촌·산림·생태관광 활성화 •일상의 삶을 관광자원화
지역주도 관광정책 추진 통한 관광역량 강화	•지역주도 관광활성화·체계 정비 •지역관광 서비스·인프라 개선 •외래관광객 지방방문 확대 유도	•한국형 DMO 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분위기 조성
지역 관광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산업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 주민 관광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2018-07-11일자).

4. 위협

가. 관광객 지방분산 한계에 따른 관광 사업체 수도권 집중

2018년 기준 관광진흥법상 전국 관광사업체는 34,126개, 2016년 기준 전국 관광종사자는 261,978명으로 관광사업체의 45.0%, 관광종사자의 48.6%가 각각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관광종사자는 227,532명으로 전국 평균 216,178명 보다 많았지만, 관광객 10만명당 관광종사자는 전국 9,352.9명 대비 2,399.5명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내에는 경남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등 9개 대학에 18개의 관광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재적생수는 3,086명으로 전국 평균 2,190.8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남도 차원에서 관광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6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 여행 방문지역은 서울 78.0%, 제주 20.2%, 경기 13.1%, 부산 10.4% 등의 순이며, 경남은 1.9%로 전국에서 8번째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 K트래블버스, 코리아투어카드 등 외래관광객의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제주에 외래관광객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방한관광시장 구조로 인해 2017년 사드여파로 방한관광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이후, 정부는 이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한 관광시장을 주력시장(중국, 일본, 미국), 도약시장(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등), 신흥시장(인도, 몽골, 카자흐스탄 등), 고부가시장(러시아, 중동) 등으로 다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도 주한 밀리터리 관광객 유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남관광홍보관 운영, 김해공항 국제선 라이트박스 광고 운영, 실크로드 한중대학생 SNS기자단 운영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남의 경우 외래관광객에 인지도가 낮고, 외래관광객 선호 관광지 및 관광시설 부족, 수도권과 부산대비 열악한 교통 접근성 등으로 인해 외래관광객 수요 시장은 다소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경남 실정에 부합하는 타겟시장을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래관광객 선호 인프라 구축, 시장별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통역안내사 등 인력양성,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확대까지 단계별 종합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외래관광객의 관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남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타지자체 관광산업 육성 경쟁 가속화

21세기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지칭되면서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대체 휴일제 도입을 통한 여가시간의 증대, 워라벨 등 삶의 질 중시 가치관 확산 등 급변하는 관광환경과 관광수요의 양적 증대 및 질적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전략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경남은 역사문화(가야, 유교), 해양관광, MICE 등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주변 경쟁지역의 경우, 부산은 영화·영상, MICE, 전남은 해양(섬, 레저스포츠), 역사문화(이순신, 남도문예), 경북은 역사문화(유교·가야·신라, 종가음식, 한옥) 등 국내 각 지자체별로 특화 관광자원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분야를 지정,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

2013년 이후 국민 국내 관광수요는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지만, 현재 경남의 관광수요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형 메가이벤트의 개최 여부, 경상·전라권의 관광객 수 감소, 40~50대 남성 관광객 감소, 도내 관광지 노후화 및 콘텐츠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경남에서도 주기적으로 국내외 관광트렌드와 중앙정부·타지자체 정책 및 시장동향 분석, 관광수요 진단 등을 통해 경남의 실정에 부합하는 타겟시장을 선정하고, 주변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대응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체된 경남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VI. 발전과제

1. 주요 표적시장 선정 및 우선순위 도출

가. 주요 표적시장 선정

표적시장	
거주지역별 /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심에서 충청권, 강원권, 외국인 관광객으로 확대
시기·활동별 /	봄·가을철 꽃·섬, 여름철 해수욕·해양레저, 사계절 역사문화·도시관광 체험관광객과 여행주간 관광객 유치
연령별 /	주요 관광객인 50~60대 중장년층, 해양·야간경관 등을 활용 20~30대 연인·친구·부부 등 2030 관광객 유치

주요 표적시장은 거주지역별, 시기·활동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관광시장의 주 수요층인 부산, 대구 등 영남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주, 전남 등 호남권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충청권, 강원권, 외국인관광객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기·활동별로 보면, 경남의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봄·가을철에는 꽃과 섬, 여름철에는 해수욕과 해양레저 수요층을 공략하고, 사계절 유치가 가능한 역사문화·도시관광, 체험관광객을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별로는 경남 방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0~60대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도내 우수한 해양·야간경관 등을 활용하여 연인, 친구, 부부 단위의 2030 관광객까지 확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단계별 사업추진전략

경남지역 관광산업 발전과제로 관광정책 지원강화, 테마별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기간에 따라 단기·중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과제로는 단기간 내 도입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중기과제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는 개별여행객 지원정책 추진, 경남 마케팅 강화 및 주요 관광시설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생각되며, 특히 전통의약엑스포,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공룡엑스포 등 기존 개최된 메가이벤트를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통한 연도별 개최가 경남

관광산업 제도약의 전환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75> 세부과제별 우선순위 도출

구분	과제명	우선순위
관광정책 지원 강화	•개별여행객 지원정책 추진	단기
	•경남 관광 마케팅 강화 및 주요 관광시설 연계 시스템 구축	단기
	•노후문화관광시설 관광재생사업 추진	중기
테마별 관광산업 활성화	•메가 이벤트 개최	단기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6차 산업 연계 관광산업 육성	단기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중기
부문별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여행업 육성	단기
	•숙박업소 인증제 관리 강화 및 숙박시설 다양화	단기
	•식음시설 정보 제공 확대와 환대서비스 개선	단기
	•거점 쇼핑시설 육성	중기
	•경남 주요산업 연계 MICE산업 육성 및 지역 대표시설 MICE 유니크 배뉴화	중기

2. 관광정책 지원 강화 방안

가. 개별여행객 지원 정책 추진

국민여행실태조사를 토대로 경남 관광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11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2010년 52.8%에서 2016년 27.4%로 감소하였으며 1회 평균 동반자수 또한 2010년 13.8명에서 2016년 8.5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 중심으로 관광행태가 변화하고 있지만, 도내 시군들 대부분이 10~30명 이상의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아직까지 단체여행객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변화 하고 있는 관광객 욕구 및 관광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개별여행객 대상의 지원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경남발전연구원, 2017).

타 지자체의 개별여행객 지원제도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목포시는 내일로(RAIL로) 이용객 또는 바다로(여객선)를 이용한 개별여행객이 목포 시내 숙박업소를 이용하였을 경우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도내에서는 통영시에서 외국인 5인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단체여행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5명 이상의 소규모 단위 여행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KTX, ITX, 새마을, 무궁화, 남도해양열차 등 육로, 유람선 등 해로, 내일로, 바다로 등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개별 방문 교통여행객에 숙박요금을 지원하는 등의 개별여행객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경남도 내 개별여행객 유치 확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남 관광 마케팅 강화 및 주요 관광시설 연계 시스템 구축

경남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인접지역인 경상·전라권과 연계한 마케팅 전략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해안 연안 셔틀 크루즈, 동남권·남중권 광역시티투어버스 등 남해안, 동남권, 남중권 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광역 관광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추진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국민 여가문화생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영화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 고객이 많은 미용실·뷰티샵, 40~50대 남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 등 집객지점을 대상으로 경남 관광홍보 책자를 비치하는 등 집중 마케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한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경남 관광 매력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레포츠, 건강 등이 주요 관심사인 40~60대 남성의 경우, 사우스케이프, 드비치골프클럽 등 골프장, 도내 위치한 다양한 낚시 포인트를 홍보하고, 먹방, 사진찍기 좋은 곳, 야경 등이 주요 관심사인 20~30대 여성은 창원 가로수길, 율하 카페거리, 김해 봉리단 길 등 카페거리와 맛집, 김해가야테마파크, 용지호수, 귀산동(마창대교 일원) 등 야경 포인트 등을 수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인 남해안 연안 셔틀 크루즈 사업을 연계하여 연안 크루즈 시범운항(여수-물건-통영항)과 동시에 기항지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 남해, 거제 등 도내 주요항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의 협의체인 동남권관광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동남권 트래블버스, 경남(진주, 사천, 남해, 하동), 전남(광양, 순천, 여수, 고흥, 보성) 9개 시군 협의체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 운영 예정인 남중권 시티투어버스의 운영 및 노선 확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내 다양한 관광지 이용 확대를 위해 관광시설 간 연계 전략의 검토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주요 정책으로 지역형 코리아투어카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개별여행객 증가 추세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 제공,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편중현상 해소,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14개 시군 64개 관광지, 주차장 34개소, 특별할인 가맹점(음식점, 숙박, 체험시설 등) 1,048여개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북투어패스를 개발·운영 중에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17).

경남도내에서도 하동군이 하동관광시설 통합 할인권 제도를 도입하여 켄싱턴리조트, 비바체리조트, 레일바이크, 짬뽕이더 중 1개 시설 이용 시 다른 3개 관광시설 요금의 3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연계 시스템 구축에 활용 가능한 도내 대표 관광시설로는 케이블카(통영, 사천 등 2개소), 루지(통영, 양산(예정)), 짬라인(거제 덕포랜드 씨라인, 하동 금오산 짬뽕이더 등 7개소), 레일바이크(하동, 김해), 워터파크(김해) 등이 있는데, 시설-시설, 시설-숙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할인하는 관광패스 개념 도입을 통해 일

부 시군의 관광객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관광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통영의 케이블카, 루지, 하동의 썰매와어, 레일바이크의 경우와 같이 관광시설의 집적화가 전제조건이며, 투어패스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 도입 관광지, 관광시설, 숙박시설의 수요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 노후문화관광시설 관광재생사업 추진

체험, 테마 활동 선호의 관광 트렌드에 따라 김해 롯데워터파크, 가야테마파크, 합천 영상테마파크 등 테마 관광지, 농어촌체험마을은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광지 수명주기에 따라 노후화된 관광지,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존 관광지 등은 관광객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경남 주요 관광지 1개소당 평균 입장객은 2013년 32만명을 기록한 반면, 2016년 24만명으로 23.5%가 감소(경남발전연구원, 2017)하였으며, 도내 등록 박물관·미술관 68개소 중 약 33.8%(23개소)가 15년 이상의 노후화된 시설이다. 따라서 정체 또는 성장 한계의 관광지, 관광시설, 노후화된 문화시설 등에 4차 산업 기술 도입한다면 관광매력도를 회복하고, 재도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경남은 명량의 인기 등으로 도입된 거북선 8척(창원 1, 통영 4, 거제 2, 남해 1)을 보유하고 있는데, 통영 거북선 유료입장객이 2014년 17.6만, 2015년 15.9만, 2016년 11.8만으로 연평균 17.7% 감소하는 등 관광객 유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거북선 내 첨단 ICT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하여 가상·현실 체험프로그램 제공한다면 가족단위 방문객과 디지털네이티브 세대 등 다양한 방문객층 유치와 동시에 관광시설 재생 도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테마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가. 메가 이벤트 개최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입장료 수입, 상품판매, 숙박시설 이용, 고용창출 등 개최지역에서의 직간접적인 수익창출 활동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역민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메가 이벤트 개최는 관광객 유입 급증과 지역 붐업효과 등이 있으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 경제·문화·사회적 교류 촉진, 지역홍보 등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17). 실제로 2013~2016년까지 메가 이벤트가 없었던 2015년 경남관광객 수는 8,479,567명으로 최저를 기록, 메가 이벤트 개최 여부가 경남관광객 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메가 이벤트 개최의 중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2018년에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으로 도내 관광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메가이벤트의 효율적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2년 주기로 개최되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 3년 주기로 개최되는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산청전통의약엑스포,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등 경남도와 시·군 공동의 기존 메가이벤트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경남의 사상과 동양 대표 철학을 논하는 ‘(가칭)세계 사상(思想) 엑스포’ 등 신규 이벤트 개최를 통해 주기적 메가 이벤트 개최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 집객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6차 산업 연계 관광산업 육성

경남은 동의보감촌, 산삼휴양밸리, 거창 향노화 힐링 특구(가조온천), 해인사 소리길 등 풍부한 웰니스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향노화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웰니스 시장 선점과 향노화 서비스 산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도내에는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입지하여 R&D 지속 추진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방·양방·해양 웰니스·향노화산업 추진 등 경남도 차원에서 향노화·웰니스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경남향노화주식회사에서는 공무원, 기업 단체 등 국내 관광객, 외국인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웰니스 관광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동시에 경남도는 향노화 건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향노화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우수한 환경적, 정책적 여건을 바탕으로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사업비 총 8억 원을 투입하여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웰니스 관광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학·연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설정하고, 타겟시장을 선정하여 시장별 프로그램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웰니스 관광에 대해 단일화된 정보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별 거점을 중심으로 웰니스관광 웰컴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형, 기업체형 등 프로그램 세분화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유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남도와 도내 주요 대학 간의 MOU 체결을 통해 웰니스 관광 관련 교과목 개설을 검토하고, 전문인력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6차산업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6차산업화는 농촌, 어촌, 산림 등 지역의 기존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어업·임업과 식품, 특산물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관광, 체험 등 서비스(3차 산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지역주민 소득 창출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16; 6차산

업.com). 특히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두레·사회적 기업 등 지역 주민 참여의 관광사업 발굴·지원 강화, 지역주민 대상 생태관광 디렉터 양성과정 운영, 산림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농촌 관광 플래너 육성,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기준 강화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하동의 전통차농업과 같은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 등 농업·농촌 고유의 경관을 보전·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농촌체험학습 활성화와 어촌어항을 현대화 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어촌뉴딜 300 프로젝트 시행 등 농어촌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정책 외 경남도 차원에서도 6차산업화 지구 지정 확대를 통한 국비 확보, 향노화 웰니스 음식 개발, 마을 단위 수준에서 건강 프로그램 운영, 웰니스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웰니스마을 선정 등 향노화·웰니스 산업 연계 6차산업화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경남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05개소, 어촌체험휴양마을 2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자연공원 16개소가 위치, 각각 전국 평균 56.1개소, 6.2개소, 4.6개소 보다 월등히 많다. 도내 풍부하고 다양한 농어촌 자원,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6차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의 선진지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다.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스포츠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대비하여 역사, 자연환경, 문화, 사회적 자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직접적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민철, 2007). 따라서 각 지자체별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경남은 남해안의 온화한 겨울 기온과 2,170개의 풍부한 공공체육시설(전국 네 번째)을 토대로 최적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숙박시설 및 음식점 할인 등 유치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경남 스포츠 관광산업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18). 실제로 경남의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은 2015년 2,245팀·44,590명, 2016년 2,604팀·50,551명, 2017년 2,996팀·51,940명, 2018년 2,860팀·52,23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경남을 스포츠 전지훈련지로서의 매력도를 제고하고, 경남 스포츠 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속 성장세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지훈련 선수단,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전지훈련시설, 지역정보,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예약을 지원하는 전지훈련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장기간 체류하는 전지훈련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남형 전지훈련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부문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여행업 육성

경남에는 소규모의 여행업체들이 대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수도권 내국인 관광객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체로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국내 대형여행사의 소매역할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 및 중국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창원 2개소, 김해 1개소가 각각 지정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시·군 거점별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중국 내 적극적 모객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전담여행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여행사, 유관기관 업무협력, 고품격 관광상품 기획·유치 능력, 과거 법·규정 위반사항, 관광통역안내사 보유 현황 등 다소 까다로운 심사요건들이 적용되어 영세한 업체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 차원에서 도내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몇 곳을 선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팸투어 추진 우선권 부여, 비용,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하여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나. 숙박업소 인증제 관리 강화 및 숙박시설 다양화

2030세대 개별여행객, 혼행족 등의 증가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에 현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비즈니스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의 중저가 숙박업소에 대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여행 주요 이용 숙박시설은 펜션(17.3%), 콘도미니엄(8.2%), 호텔(7.5%), 모텔·여관, 게스트하우스, 민박, 야영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내에는 107개소의 관광숙박업 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모텔·여관 등 일반숙박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포함한다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도내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숙박업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트렌드, 지역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적용한 업종별·지역별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는 중저가 숙박시설 확대, 숙박시설 수용태세 개선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 노후화, 관광 수용태세, 서비스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군 지역 숙박업소 등의 경우,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 보면, 우선 모텔·여관 등은 품질관리 및 서비스 개선, 홍보·마케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인증제도인 관광품질인증제 지정 유도가 필요하고, 시

설 개선의 측면에서는 창원시, 진주시 등에서 추진 중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도내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모텔, 여관 등 노후화된 일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김해 한옥체험관, 함양 일두정여창 고택 등 한옥숙박업의 수요 증대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통숙박시설의 건립 확대를 검토하고, 비즈니스 관광객 증가,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 등 관광시장 변화를 고려하여 창원, 김해, 진주 등 관광거점도시에 Toyoko Inn, Best Western, BENIKIA 등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유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혼행족 증가 추세와 안전에 관심이 높은 혼행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행족 안심 숙박업소 인증제도 도입, 시군별 안전 숙박시설, 관광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 가이드북 제작 등의 검토도 가능하다.

다. 식음시설 정보 제공 확대와 환대서비스 개선

먹방여행 트렌드에 따라 음식관광 자체를 관광목적으로 하는 음식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도 관광객들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보제공 및 홍보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경남맛집 30선이 있으나 젊은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고, 2012년 창원상공회의소의 우리지역 맛집 100선 ‘뭇무꼬?’ 등이 두 번 발간한 뒤 피드백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관광객들은 지역 맛집에 대한 정보를 포털이나 SNS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은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남도내 식음시설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가칭)경남 맛집 100선’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 맛집 및 음식 정보제공과 동시에 방송·SNS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마케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뚝뚝하다는 선입견이 있는 경남 종사자들의 인지도 개선 등을 위해 스마일 운동 전개 및 친절서비스 교육 등이 필요하며, 친절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혼행족의 증가는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식음시설의 이용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창원시는 2018년 창원 방문의 해를 기념하여 전국 최초로 혼행족들의 창원방문 유도를 위해 혼밥 음식점 60개소를 지정하여 식음시설에는 혼밥집 스티커, 식기세트를 지원하고, 창원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내 게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혼밥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경남발전연구원, 2017). 경남도에서도 모범음식점, 맛집 등 시군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혼밥 음식점 참가 업체를 모집·지정하여 경남 관광홍보책자, 경남 관광길잡이 홈페이지, 시군별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혼행족 유치를 위한 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 거점 쇼핑시설 육성

도내 거점 쇼핑시설로는 김해롯데아울렛, 2013년 개점한 시내 면세점인 창원대동면세점, 창원컨벤션센터 내 입지한 경남관광기념품점 등이 있다.

먼저 창원대동면세점은 호텔인터내셔널 지하 1층에 위치, 46개 업체·83개 브랜드가 입점하여 있으며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없고, 규모가 협소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반면 2009년 개점한 경남관광기념품점은 창원컨벤션센터 1층에 위치, 경남관광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147개 업체에서 1,33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개의 쇼핑공간이 분리 운영되어 쇼핑 시 관광객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남관광기념품점의 경우 단순 기념품만 판매되고 있어 쇼핑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경남관광기념품점-대동면세점 간 연계를 통해 쇼핑시설의 집적화 혹은 경남관광기념품점 품목 다양화를 통한 규모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거점 쇼핑시설들은 현재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서부의 진주·사천권, 남부의 통영·거제권에도 거점 쇼핑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관광객이 3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출국 시 공항, 항만 등의 TAX FREE 환급창구 혹은 즉시 환급하여 주는 제도(한국관광공사, 2016)인 사후면세점 지정 확대도 검토가 가능하다. 사후면세점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편의점까지 시장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면세점 지정을 적극 권장하고, 지정 확대를 통해 부족한 쇼핑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마. 경남 주요산업 연계 MICE산업 육성 및 지역 대표시설 MICE 유니크 베뉴화

MICE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일반관광객의 2배로 MICE산업은 세계적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MICE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경남발전연구원, 2017). 2015년 경남의 MICE 개최건수는 6,987건(10위), 참가자수는 1,301,152명(7위)으로 전국 중하위권 수준이지만, 2012년 이후 개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 성장 도모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타 지자체의 MICE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시는 에너지 분야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지정하였고, MICE산업과 연계하여 2004년부터 매년 4월에 엑스코 자체 기획 브랜드 전시회인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세계솔라시티 총회를 시작으로 에너지 분야 3대 총회 중 세계에너지총회(2013년), 세계가스총회(2021년)를 각각 유치한바 있다.

경남에서도 5대 신성장동력산업인 기계융합산업, 나노융합산업, 항노화산업, 조선해양

플랜트, 항공우주산업 5개 분야를 연계하여 분야별 신규 MICE를 개발·육성하고, 국제 규모의 대단위 MICE를 유치함으로써 경남 MICE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경남 MICE 브랜드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통영국제음악당, 사천 항공우주박물관, 산청 동의보감촌 등 지역별 대표시설을 유니크메뉴로 지정하여 창원에 편중된 MICE산업의 균형발전 및 국제 MICE 관광객 유치 활성화 도모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경남발전연구원(2010), 경남 관광진흥 마스트플랜 수립.
- 경남발전연구원(2016), 경남 서북부권 힐링휴양벨트 지역특화사업 발굴.
- 경남발전연구원(2016), 경남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
- 경남발전연구원(2016), 경남관광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 경남발전연구원(2017), 경남 관광수요 진단 및 전략과제 도출.
- 경남발전연구원(2017), 경남 기업역사관 건립 기초연구.
- 경남발전연구원(2017), 서부경남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경남발전연구원(2017), 창원컨벤션센터 운영방안 연구.
- 경남발전연구원(2018), 경남 문화관광 지속가능 발전전략.
- 경남발전연구원(2018), 경남 방문 동계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참가자 지출비용 분석 및 정책제언.
- 경남발전연구원(2018), 문화관광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 경상남도(2017), 제6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 경상남도, 2018년 경상남도 주요업무계획.
- 경상남도·경남발전연구원(2014),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브랜드 비전과 전략사업.
- 경상남도·합천군(2014), 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분석.
- 경찰청, 2017 교통사고통계.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관계부처합동(2018),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2017), 2017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 국회입법조사처(2016), 도서(섬)지역의 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 1218호.
- 김중재·이경진(2015), 국내 관광지 수명주기 분석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07), 관광공급지표 개발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08), 관광진흥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방한관광시장의 모든 것.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2~2017 외래관광객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숫자로 보는 한국관광.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6 방한관광시장의 모든 것.
- 문화체육관광부(2018),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2~2016 국민여행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4~2016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주요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현황(2017. 12. 31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5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 산업연구원(2015), 관광산업 통계기반 개선사업 연구.
- 산청군(2013),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결과 및 운영성과.
- 서울연구원(2006), 동아시아 도시간 국제관광경쟁력 비교 연구.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공요금 조사결과(2018.5월).
- 심원섭(2010),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 오경숙(2012),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기여효과 분석.
- 은행연합회, 2017년 12월말 기준 은행 점포 현황.
- 전북발전연구원(2014), 전라북도 관광산업 성장동력화 방안연구.
- 창원시, 2018년 1월~6월 창원시 주요업무계획.
- 채서목(1990), 관광사업개론
- 통계청, 2012~2016 전국사업체조사.
- 하동원(2017), 관광산업의 이해와 발전방안.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전국 골프장 현황(2016.1.1 기준).
- 한국관광공사(2013),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모델.
- 한국관광공사(2017), 2016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2018),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활용 여행 트렌드 분석.
- 한국관광공사, 전국관광안내소 목록.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4~2018년 1분기 관광사업체 현황.
- 한국교통연구원(2003), 특집 여가의 증가와 관광교통: 국내 관광 정책의 추세와 전망, 월간교통 2003-08.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0),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모델 개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한국의 관광산업 국가경쟁력 분석: OECD 주요 국가 비교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7), 기획특집 한국의 국가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관광정책 2007 봄 통권 제27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키워드로 보는 2016년 세계관광트렌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4차 산업혁명과 문화·관광 산업 정책방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
- 김성현(2005), 지역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영향 분석.
- 김사헌(1999). 『관광경제학 신론』. 서울: 일신사.

- 류광훈(2003), 관광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측정지표 개발연구.
- 한국여행업협회,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명단(2018.05.15. 기준).
- 한국여행업협회, 중국단체관광객유치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_2018.04 개정(안).
- 한국호텔업협회(2017), 2016 호텔업운영현황.
- 한국호텔업협회,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현황(2016.12.31.기준).
- 행정안전부, 전국공중화장실 현황(2016년 12월 기준).
-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공개.
- OECD(2018), OECD 2018 관광 동향과 정책.
- UNWTO(2017), 「Tourism Highlights」.
- UNWTO(2017), 「World Tourism Barometer」, October, 2017.
- WEF(2017),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7.
- Bull, A(1995), The economics of travel and tourism, Longman.
- e-나라지표(www.index.go.kr).
- 경남도청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경남지방경찰청(gnpolice.go.kr)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국외여행인솔자 인력관리시스템(www.tchrm.or.kr)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위치정보시스템(www.hospitalmaps.or.kr)
- 문화재청(www.cha.go.kr)
-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
- 유네스코와 유산(heritage.unesco.or.kr)
-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
- 크루즈관광 통합정보(cruise.visitkorea.or.kr)
-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8443)
- 한국공항공사(www.airport.co.kr)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to.visit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www.ekta.kr)
- 합천문화관광(culture.hc.go.kr)
- 경남매일신문(2016-05-13일자)'제54회 진해군항제·군악의장페스티벌' 평가보고회.
- 경남신문(2016-09-04일자), “고성공룡엑스포, 관광발전 기여·공무원 동원 문제”.
- 네이버뉴스(2015-04-14일자)진해 군항제 관광객 251만명…714억원 파급효과.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08-03-28일자), 2008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5-07-09일자), 문체부,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에 총력 대응.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6-08-29일자), 관광 일자리 연결의 장, 2016 관광산업채용박람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07-12일자), 관광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10-19일자), 2016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12-28일자), 문체부,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부산일보(2014-04-14일자) 진해군항제 306만 명 찾아 즐겼다.

익스피디아 트래블블로그(2016-12-23일자), 2017년 여행 트렌드, 한 눈에 알아보기.

제주도민일보(2013-11-28일자), [전문] 제주관광 1천만 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nsp통신(2013-10-21일자), [한국대표축제] “역사와 스토리텔링이 함께한” 2013 진주 남강유등축제 총결산(14).